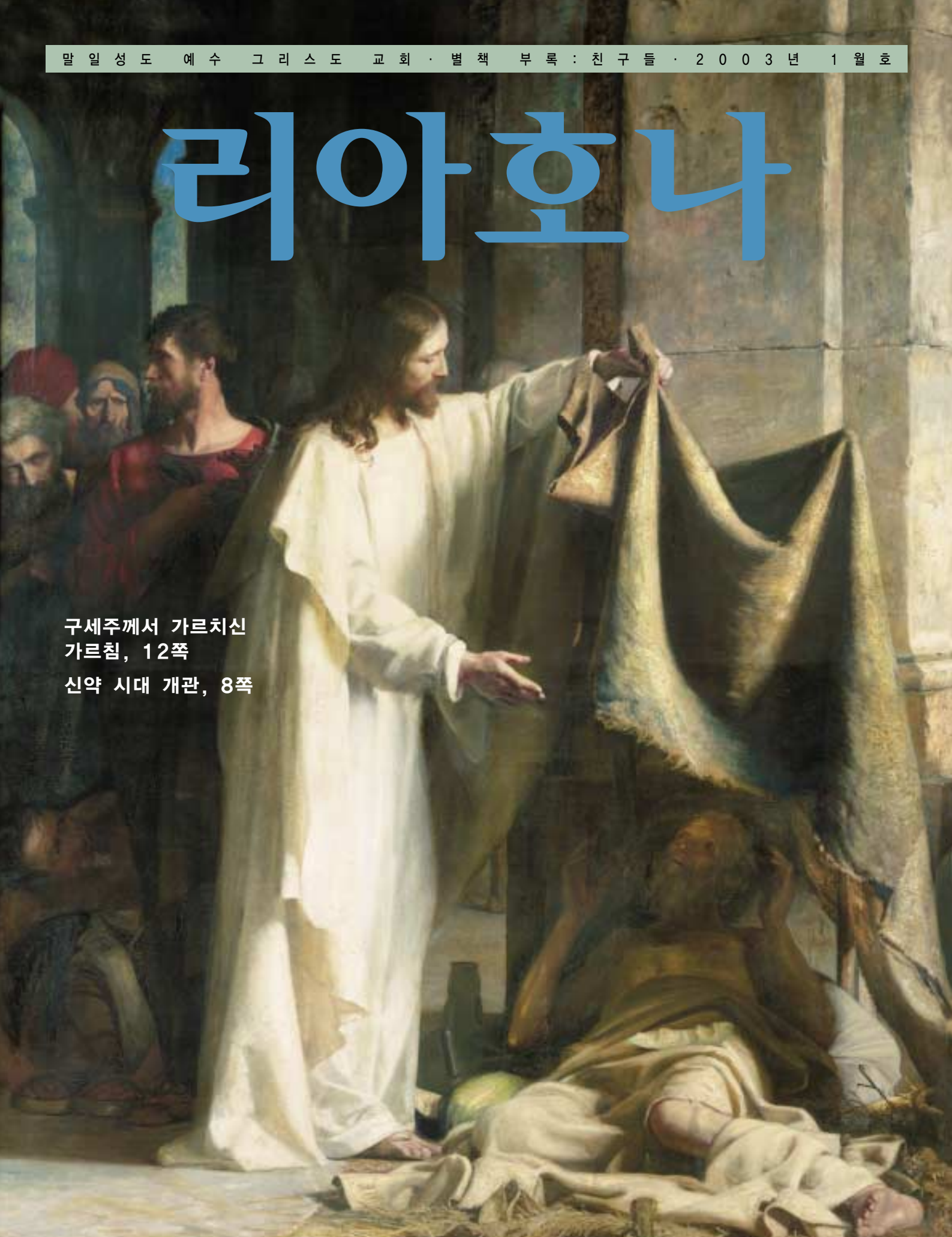


# 리아호나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12쪽  
신약 시대 개관, 8쪽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태복음 4:23),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가르침, 설교, 병 고침” 참조, 12쪽

# 리아호나



### 표지

앞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베데스다 못, © 브리감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 all rights reserved.  
뒤 그림: 시몬 듀이, 생명수, 유타 알투스 파인 아트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 친구들 표지

그림: 브라이언 콜, "성전 카드" 6쪽 참조



34쪽 참조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주님의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8 신약 시대 개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탄생에서 마지막 주까지
- 12 가르침, 설교, 병 고침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 34 진리의 수호자 칼라 시 에릭슨
- 42 말일성도의 소리  
참된 보화 소피아 코리나 리몬디 데 아그레다  
조카딸의 간증 이르마 데 맥케나  
나는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넬 타마잔
- 48 2003년 리아호나 활용하기

## 청소년란

- 24 아이디어 목록: 십대가 십대를 인도함 샬롯테 케차페로
- 26 땅 끝까지 리차드 엠 롬니
- 32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로렐리 바셋 레빗
- 47 알고 계십니까?

## 친구들란

- 2 예언자의 음성 듣고: 성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4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비키 에프 마쭈모리
- 6 성전 카드
- 7 최선을 다하라  
비앤 프레스트위치
- 10 신약전서 이야기:  
열 처녀;  
달란트
- 16 특별한 증인: 침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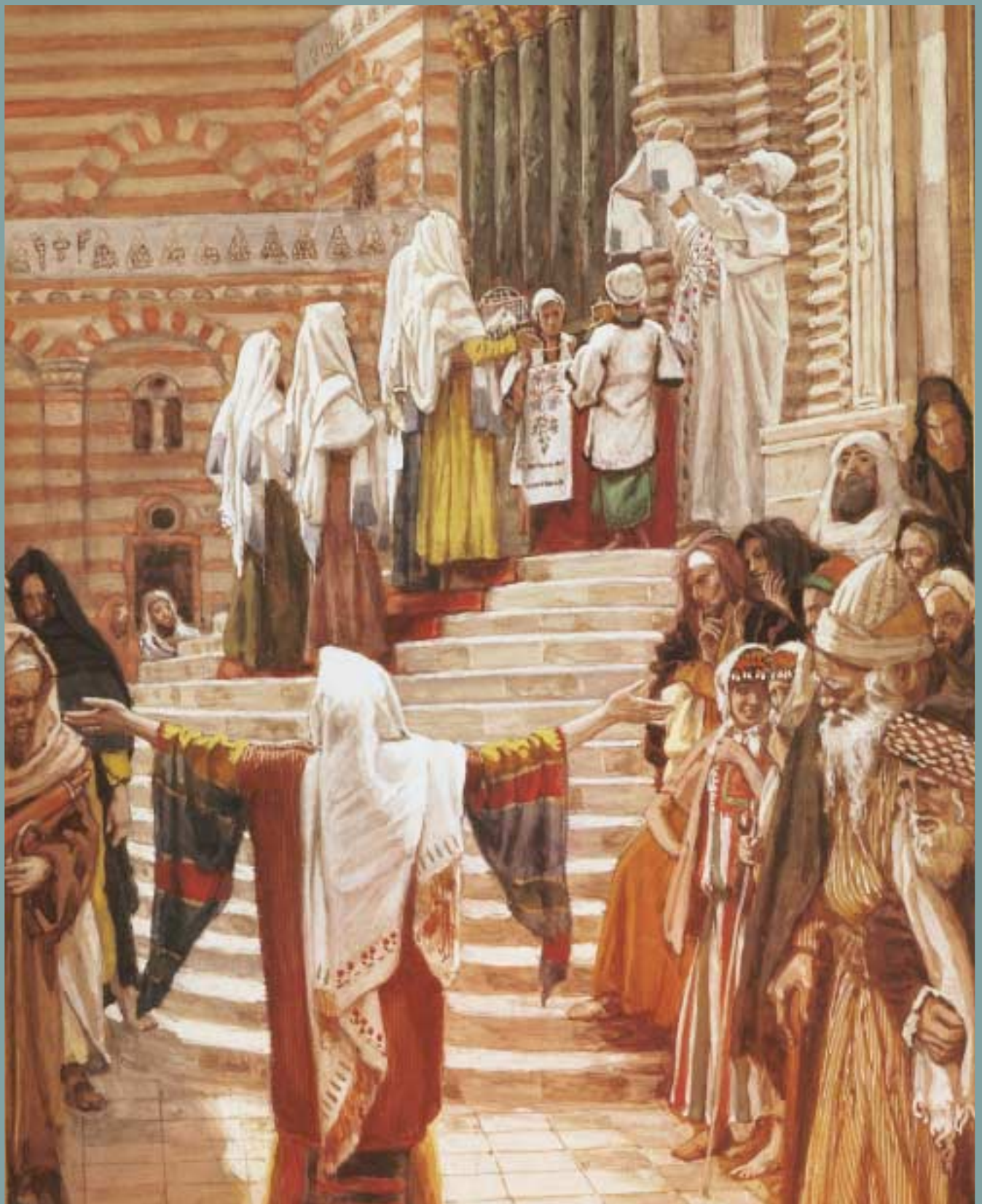
친구들 16쪽 참조



## 삽입

함께 나누는 시간 포스터:  
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





**그리스도를 성전에 데려감, 제임즈 제이 티솅**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나니”(누가복음 2:27~3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인드

**고문:** 제이 켄트 즐리, 더블류 롤프 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일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엘 그린우드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리자 앤 잭슨

편집 보조: 수잔 브렛

출판 보조: 클러트 네베커 오운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선일 디자이너: 새라 쿡

디자이너: 토마스 에스 차일드, 랜들 제이 픽스톤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데니즈 커비, 켈리 프렛,

로널드 에프 스파크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와너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인쇄 및 배부:**

인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구독): 크리스티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42호, 제 40권, 제 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3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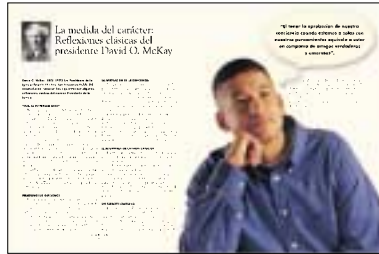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헝가리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일로카노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푸두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니아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January 2003 No.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양심의 허락**

저희 가족은 20년 넘게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모아 왔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필요로 할 때마다 이 책들은 진정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2001년 9월호에 실린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위한 훌륭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우리가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자기 양심의 허락을 받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참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는 영적인 권고를 주셨습니다. ("성품의 형성: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영감의 말씀",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40쪽) 우리 가족은 리아호나로부터 받는 영적인 힘에 대해 감사합니다.

에르난 톨레도 마르티네스,  
칠레 앙골 스테이크  
엘 미라도르 워드

**리아호나 덕택에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L' Etoile( '레뜨왈' [별], 이전 교회 잡지의 프랑스어 명칭) 마지막 호와 Le Liahona(최근 교회 잡지의 프랑스어 명칭) 첫번째 호 덕택에 오랫동안 갈구해 오던 회복된 복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배운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 실망하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돌아오셔서 복음을 몸소 선포하시기 전에는 어떤 교회에도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잡지 기사들에 실린 내용을 읽고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이 복음의 진리로 인도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피델레 키투마-와-탈란잠비,  
콩고 민주 공화국 킌사사 선교부,  
음부지 마이 지부

**교회 소식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를 즐겨 읽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회 소식을 제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읽으면 세상의 다른 곳에 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교회 잡지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소식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드리고 바로스 소아레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남스테이크  
닐로 울프 워드



# 주님의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 사랑하라는 신성한 계명

**주**님의 유대 성역 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sup>1</sup>

시대는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율법사에게 주신 구세주의 권고는 마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 그 계명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금년에 우리는 신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문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성한 계명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율** 법사에게 주신 구세주의 권고는 마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 “나는 너희가 치켜들 빛이니 너희는 나의 행함을 본대로 행하라.”<sup>2</sup> 그분은 정말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던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진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목자들이 그분을 경배하려고 달려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분께 드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절정의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탄생함으로써, 큰 엔다우먼트, 즉 무기보다 강한 힘과 가이사의 돈보다 더 오래 가는 부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약속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sup>3</sup> 그분은 요한에게서 침례 받으셨으며,<sup>4</sup>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sup>5</sup> 셧습니다. 나인에서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보내셨으며,<sup>6</sup> 베데스다에서는 약속의 연못에 들어갈 희망이 없었던 절름발이 병자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손을 뻗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sup>7</sup>

그런 다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으며 엄청난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만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위대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골고다의 십자가에 잔인하게 매달리셨습니다. 이 생애에서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sup>8</sup>는 말씀으로 위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감동적인 사랑의 말로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sup>9</sup>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위대하신 구세주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 구세주를 닮아감

일찍이 주님이 하신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귀에 천둥처럼 울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sup>10</sup>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sup>11</sup> 저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그분에게서 배우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침을 얻을지니”<sup>12</sup>

**2. 그분을 믿으십시오.**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sup>13</sup> 우리는 하늘 아래 오로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분을 통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동정심이라는 말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사심 없는 봉사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발걸음이 빨라지고 견해가 넓어집니다.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때때로 느끼지 못한다 해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 이웃에 대한 구세주의 사랑

구세주께서는 질문을 던진 율법사에게 주신 교훈의 두 번째 부분, 곧 “황금률”<sup>14</sup>이라고 불리는 이웃 사랑을 성역 기간 내내 실천하셨습니다.

치유받은 맹인과, 살아난 아이로의 딸과 깨끗하게 나온 나병환자 모두 예수님의 이웃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이웃이었습니다. 온전하신 분인 주님은 죄 짓고 고백하는 여인 앞에 서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여인은 여행자였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 이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친절과 도움을 기다리는 이웃은 없습니까?

몇 년 전 저는 로이터 통신 기사에서,



앵커리지에서 시애틀까지 승객 150명을 싣고 직항하던 알래스카 항공사 소속의 항공기 한 대가 심한 부상을 입은 어린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오지 마을로 항로를 돌렸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살 난 윌리엄스 3세는 앵커리지에서 남쪽으로 72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마을인 야쿠타트의 집 근처에서 놀다가 유리 조각 위에 넘어져 팔 뒀쪽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들은 항공사에 아이를 구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앵커리지-시애틀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야쿠타트로 항로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출혈이 너무 심해 시애틀까지 가면 목숨이 위협할 것이라고 했으며, 비행기는 320킬로미터를 날아 병원이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인 주노로 갔습니다. 그 후에 비행기가 시애틀로 돌아갔을 때는 두 시간이 연착되어 대부분의 승객들은 연결편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호주머니를 털어 이 아이와 가족을 위해 성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후에 비행기가 시애틀에 착륙할 때쯤, 승객들은 기장으로부터 엘튼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무선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 잃어버린 기회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웃 집에 누가 삽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집 아이들은 우리 집 잔디밭을 뛰어다니는데다 그 집 개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다른 분위기로, 또 다른 사람은 어느 날 밤 일기에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길 건너 집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다. 초상이 난 것을 알리는 검정 천이 문에 걸린 것을 보고서야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시인은 영원히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슬픔을 시로 읊었습니다.



**그**분은 동정심이라는 말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사심 없는 봉사 그 자체였습니다.

한없이 커다란 이 도시,  
바로 길 어귀에 내 친구가 한 명 살지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고  
또 어느 새 한 해가 지났건만  
내 오랜 친구 얼굴 한 번 못 보네  
삶이란 게 쏘살 같은 뿔박질이라.  
내 그를 좋아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지  
그 어린 시절엔,  
내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날  
그도 우리 집을 찾았거든.  
이제 우린 바쁘고 피로에 젖은 어른이 되었네  
어리석은 게임을 하느라 지치고,  
이름을 날리겠다고 뛰느라 지치고.  
내일은 짐을 찾아가  
내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어야지.  
그러나 내일은 이내 왔다가 가 버리네  
우리 사이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 길 어귀는 왜 그리 먼 곳인지 ...  
“전보 왔습니다!”  
“짐, 사망”

그렇게 되고 마는 거야, 결국 그런 걸.  
그 길 어귀, 친구는 고인이 되었네.<sup>15</sup>



**그**분은 위대한 의사이지만, 의사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곧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 “교환입니다”

오래 전 저는 폴이라는 한 어린 소년과, 그가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전화 교환원이 나누는 이웃 간의 사랑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며 기억하는 그 시절을 새로운 세대는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거의 맨 처음으로 집에 전화기를 들여 놓으셨습니다. 상자 옆면에 빛나는 수화기가 걸려 있던 것이 기억 납니다. 전 너무 작아서 수화기에 손이 닿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수화기에 대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황홀하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 때 저는 그 신기한 기계 안 어딘가에 놀라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교환입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교환입니다’ 는 어떤 사람의 전화 번호도, 정확한 시간도 다 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걸상에 올라서면 전화기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갖가지 일로 ‘교환입니다’ 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에게 지리에 관해 물었을 때, 그녀는 필라델피아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산수도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키우던 카나리아 피티가 죽었습니다. 저는 ‘교환입니다’ 에게 전화를 걸어 그 슬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보통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위로할 때 하는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새들은 온 가족에게 아름답게 노래해 주고 기쁨을 주다가 발을 쪽 뺏고는 새장 바닥에서 죽어야 하죠?’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깊이 상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폴, 노래부를 수 있는 다른 세상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렴.’ 저는 기분이 약간 나아졌습니다.

“이 일은 시애틀 부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보스턴으로 이사를 갑니다. 저는 제 친구가 무척 그리웠습니다. ‘교환입니다’ 는 고향 집 낡은 나무 상자 속에 남아 있었고, 저는 무슨 이유에선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누었던 대화의 추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종종 의심과 혼란의 느낌이 들 때마다 저는 그 시절에 느꼈던 안정과 평온함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인내심과 이해심을 갖고 친절하게 어린 소년들 대해 주었던가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후에 제가 서부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길에, 비행기가 시애틀에 멈추었습니다. 저는 ‘교환입니다.’ 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당신이 그 시절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전화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실지 모르겠네요. 제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의 전화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지요.’ 저는 그녀에게 그 동안 얼마나 자주 그녀를 떠올렸는지 말해 주고, 서부에 돌아올 때 또 전화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쉐리를 찾으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시애틀로 왔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교환입니다’ 저는 쉐리를 찾았습니다. ‘친구세요? 그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아주 오랜 친구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해야겠군요. 쉐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몸이 아파서 시간제로 일해 왔어요. 쉐리는 5주 전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의 이름이 폴이라고 하셨나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샬리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남겼군요. 그녀가 메시지를 적어 놓았어요. 여기 있군요, 읽어 드릴게요. 노래할 수 있는 다른 세상들이 있다고 폴에게 전해 주세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폴이 말했습니다. “샬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sup>16</sup>

전화 교환원인 샬리와 이제 어른이 된 소년 폴은 서로에게 진실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 “나를 따르라”

정말로 노래할 수 있는 다른 세상들이 있습니다. 구세주이신 우리의 주님은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슬픔에 빠진 마르다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sup>17</sup>

우리의 구세주인 주님을 진실로 찾았다면 분명히 그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옛날 갈릴리에서처럼 이름도 없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sup>18</sup>고 똑같이 말씀하시며 이 시대에 그분이 성취해야 할 일들을 위해 우리가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수고와 갈등과 고통을 겪으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친히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실 것입니다. 이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sup>19</sup>

### 세상의 구세주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은 진리의 교사, 곧 교사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생의 귀감이 되시지만 귀감 이상의 분이십니다. 위대한 의사이시지만, 의사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곧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sup>20</sup>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sup>21</sup>

그분의 증인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도 그분을 통해 살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 주

1. 누가복음 10:25~37.
2. 요한복음 14:21; 누가복음 18:22; 니파이삼서 18:16, 24.
3. 누가복음 2:52.
4. 마태복음 3:13~16 참조.
5. 사도행전 10:38.
6. 누가복음 7:11~15 참조.
7. 요한복음 5:2~9 참조.
8. 누가복음 23:43.
9. 요한복음 19:26~27.
10. 마태복음 22:42.
11. 마태복음 27:22.
12. 마태복음 11:29.
13. 잠언 3:5~6.
14. 야고보서 2:8.
15. Charles Hanson Towne, “Around the Corner,” in *Poems That Live Forever*, sel. Hazel Felleman(1965년), 128쪽.
16. Adapted from Paul Villiard, “Information Please,” *Reader’s Digest*, 1966년 6월호, 62~65쪽.
17. 요한복음 11:25~26.
18. 요한복음 21:22.
19. Albert Schweitzer,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1948년), 401쪽.
20. 니파이삼서 11:10~11.
21. 교리와 성약 110:4.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한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1. 가족들에게 그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 보라고 부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으로부터 사랑과 친절과 도움을 받고 있는가? 이 메시지에 실린 현대의 이웃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가지 읽는다. 이웃의 비이기적인 봉사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 받았던 경험을 나눈다.

2. 종이에 큰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쓴다. “그분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 종이를 보여 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배우고 믿고 따르는 데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3.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누가복음 10:30~35)를 함께 읽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바를 토론한다. 토론이 끝날 때, 메시지 끝부분에 있는 문슨 부대관장의 간증을 소리내어 읽어 주어도 좋다.

# 신약 시대 개관

#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 탄생에서 마지막 주까지



B.C. A.D 11 21 31 겨울

사건

- 1
- 4
- 2
- 5
- 3
- 6
- 7

여행

- 8
- 9

설교

기적

비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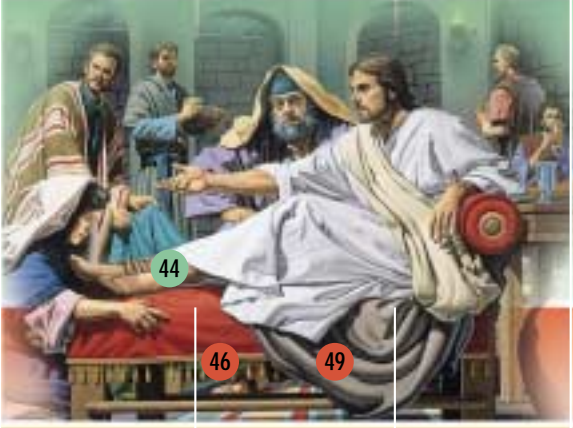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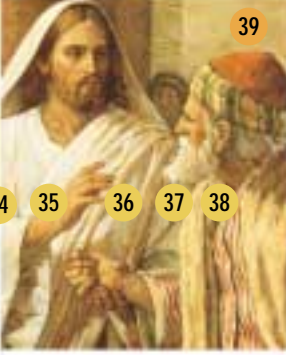
117 118 119 **물문경** 120 121

(날짜는 대략의 날짜임)

1. **누가복음 1:5~38** 예루살렘에서 한 천사가 사가라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사렛에서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누가복음 1:39~80** 마리아가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났다.
3. **마태복음 1:18~25**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음을 알게 되었다. 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그녀와 결혼하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말했다.
4. **누가복음 2:1~20; 마태복음 2:2**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새 별이 나타났으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렸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드렸다.
5. **누가복음 2:21**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할례를 받았으며,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6. **누가복음 2:22~38**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성전에 데려갔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간증했다.
7. **마태복음 2:1~12**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8. **마태복음 2:13~18**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는 헤롯의 명을 피해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 가라고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다.
9. **마태복음 2:19~23** 헤롯이 죽은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나사렛으로 데려갔다.
10. **누가복음 2:41~52**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선생들을 가르치셨다.
11. **누가복음 3:1~18** 침례 요한이 유대에서 전파하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12. **마태복음 3:13** 예수께서 베다바라까지 여행하셨다.
13. **마태복음 3:13~17**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14. **마태복음 4:1~11**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
15. **요한복음 1:35~51**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16. **요한복음 2:1**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17. **요한복음 2:1~11** 예수께서 가나의 혼례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18. **요한복음 2:13** 예수께서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19. **요한복음 2:13~17** 예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셨다.
20. **요한복음 3:1~21**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왼쪽부터: 그림: 그레그 올슨, 이병민들에게 바친 빛, MILL FOND PRESS, INC의 신앙의 비전 컬렉션에서, 베니스, 플로리다; 그 그림: 로버트 린: 하인리히 호프만, 생애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부; 그림: 제임스 터윌러 하우드,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그림: 로버트 티 베크, 한 쪽 손이 마른 남자를 고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림: 로저 라브레츠, 그들은 누구를 가장 용서하시는가

13 14 15 19 21 22 24 26 28 30				58
12 16 18 23			44 46 49	
20	31 32		43 48 52 53	
17 25 27 29	33 34 35 36 37 38		40 41 42 47 50 51	
			45	54 55 56 57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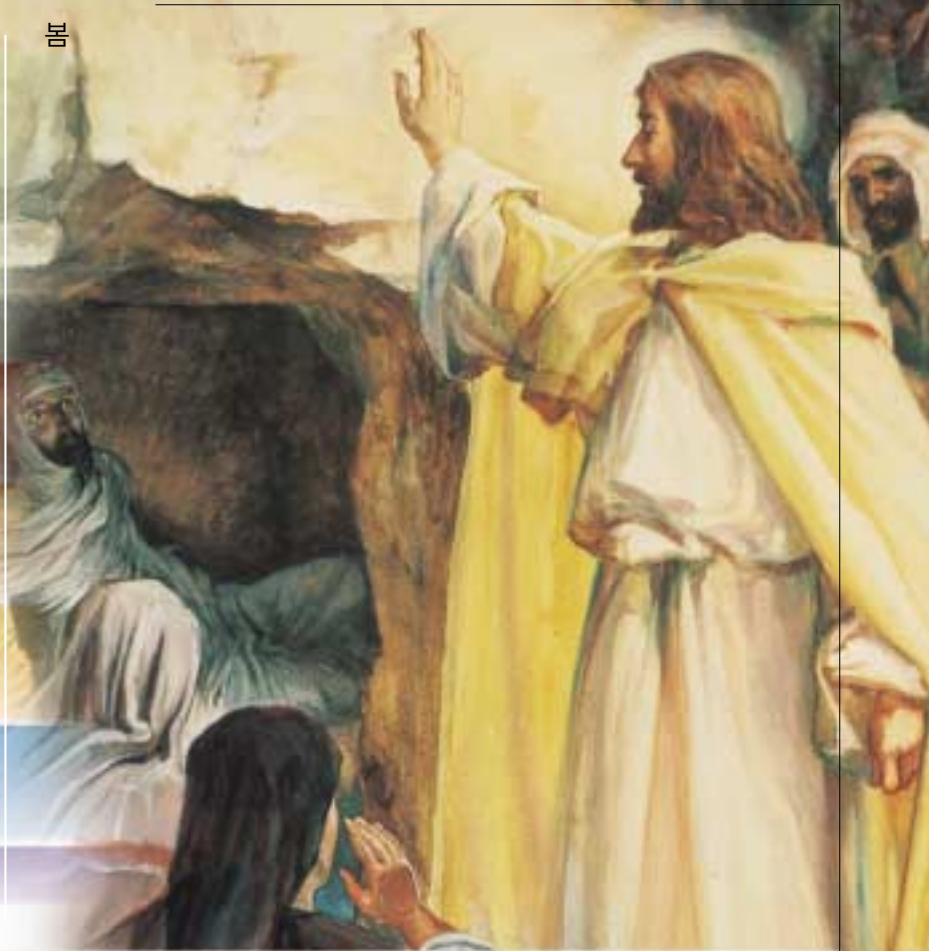
- 바리새인에게 거듭남에 대해 가르치셨다.
- 21. **요한복음 3:22~36**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설교하시고 침례를 베푸셨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
  - 22. **누가복음 3:19~20** 헤롯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넣었다.
  - 23. **요한복음 4:1~3** 예수께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 24. **요한 복음 4:4~42**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셨다.
  - 25. **요한 복음 4:46~54**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
  - 26. **누가복음 4:16~30**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기절당하셨다.
  - 27. **마가복음 1:21~28**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 28. **마태복음 4:18~22**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불러 그분을 따르게 하셨다.
  - 29. **마가복음 1:40~45** 예수께서 한 나병환자를 고치셨다.
  - 30. **마태복음 10:1~4** 예수께서 십이사도를 부르시고 성임하셨다.
  - 31. **마태복음 10:5~42** 예수께서 십이사도에게 그들의 임무를 가르치셨다.

- 32. **마태복음 5~7**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다.
- 33. **마태복음 8:5~13**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
- 34. **누가복음 7:11~17** 예수께서 나인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
- 35. **마태복음 8:14~17**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와 다른 사람들을 고치셨다.
- 36. **마태복음 8:23~27**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
- 37. **마태복음 8:28~34** 예수께서 한 무리의 귀신들에게 떠날 것을 명하자 그들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다.
- 38. **마태복음 9:1~8**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 39. **마태복음 9:10~17** 예수께서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대해 설교하셨다.
- 40. **마태복음 9:18~26**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서 한 관리의 딸을 살리셨다.
- 41. **마태복음 9:27~31** 예수께서 두 맹인을 고치셨다.
- 42. **마태복음 9:32~34** 예수께서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다.
- 43. **마태복음 11:7~19** 예수께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증언하셨다.

- 44. **누가복음 7:36~50**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 45. **누가복음 7:41~42** 두 빛진 자의 비유
- 46. **요한복음 5:1** 예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 47. **요한복음 5:2~16** 예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 가에서 한 남자를 고치셨다.
- 48. **요한복음 5:17~47**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분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셨다.
- 49. **마태복음 9:35~38**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다.
- 50. **마태복음 12:1~21**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쪽 손을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
- 51. **마태복음 12:22~23**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 52. **마태복음 12:24~45**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탄, 성령(성신)을 모독하는 것, 표적을 구하는 것에 관해 가르치셨다.
- 53. **마태복음 13:1~53**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천국에 관해 가르치셨다.
- 54. **마태복음 13:3~23; 마가복음 4:21~22** 씨 뿌리는 자와 등불의 비유
- 55. **마태복음 13:24~30, 36~43; 마가복음 4:26~29** 밀과 가라지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가을	34	겨울	봄
		112	
101 105	108 110	114 116	
94 96 99	102 104 106	109	
98	103	111 115	
95 97 100	107	113	
		123	



- 한 여인을 고치셨다.
91. **누가복음 13:22~35** 예수께서 “좁은 문”에 관해 가르치시고, 그분의 왕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해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슬퍼하셨다.
92. **누가복음 14:1~6** 안식일에 예수께서 수종병이 든 한 사람을 고쳐 주셨다.
93. **누가복음 14:7~24** 혼인 잔치와 큰 잔치에 관한 비유
94. **누가복음 14:25~35** 예수께서 무리에게 제자됨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95. **누가복음 14:28~33** 망대와 경솔한 왕에 관한 비유
96. **누가복음 15:1~16:31**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다.
97. **누가복음 15:1~17:10**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무익한 종의 비유.
98. **누가복음 17:11~19** 예수께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치셨으나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
99. **누가복음 17:20~18:14**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재림에 대해 가르치셨다.
100. **누가복음 18:1~14**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
101. **요한복음 7:2~13** 예수께서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

102. **요한복음 7:14~8:59**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간음을 행한 여인이 예수 앞에 잡혀 왔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언하셨다.
103. **요한복음 9:1~41**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고 그분이 세상의 빛임을 증언하셨다.
104. **요한복음 10:1~21** 예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가르치셨다.
105. **마가복음 10:1**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설교하셨다.
106. **마가복음 10:2~31** 예수께서 이혼에 대해 바리새인과 토론하셨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젊은 부자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107. **마태복음 20:1~16**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
108. **요한복음 10:22** 예수께서 수전절에 이르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다.
109. **요한복음 10:23~39** 예수께서 성전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가르치셨다.
110. **요한복음 10:40~42**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떠나셨다.
111. **마가복음 10:32~52**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맹인 바디매오를 고쳐 주셨다.
112. **누가복음 19:1~10**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를 그의 집으로 모셨다.
113. **누가복음 19:11~27** 은 열 마나의 비유

114. **요한복음 11:7**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다.
115. **요한복음 11:1~46**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
116. **요한복음 11:54** 예수께서 예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셨다.

### 물문경

117. **힐라멘서 14~15** 미대륙에서 레이맨인 사무엘이 예수의 탄생과 죽음을 예언했다.
118. **힐라멘서 16:13~14**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써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19. **니파이삼서 1:15~26** 하룻밤 동안 어둠이 덮이지 않는 예수 탄생의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
120. **니파이삼서 3~4장** 니파이 군대가 개다이엔톤 도적단을 격퇴했다.
121. **니파이삼서 6장** 니파이인들이 번영하자 교만해지고 예언자들을 죽였다.
122. **니파이삼서 7:15~26** 니파이가 설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123. **니파이삼서 8:3** 의로운 니파이인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의 표적을 간절히 마음으로 기다렸다.

신약시대 개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 마지막 주”는 2003년 4월에 출판됩니다.





# 가르침, 설교, 병고침

제프리 알 홀런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저없이, 그리고 마땅히, 지금까지 살았고 또한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사로 여깁니다. 신약전서에는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 설교, 비유들이 가득합니다. 그분은 어떤 식으로든, 그 책 어느 곳에서나 교사로 등장합니다. 그분은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그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첫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 (아직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마태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태복음 4:23)

그 가르침과 설교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방식의 병고침을 볼 만큼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기부터, 바로 그 첫 시간부터, 고침이라는 말은 마치 가르침과 설교의 동의어인 것처럼 언급됩니다. 최소한 그 세 가지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다음 단락은 가르침이나 설교보다는 고침에 대해 더 많이 말해 줍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저는 우리의 가르침이 영적인 종류의 고침을 가져오길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르, "베테스다 못, 베테스다 못, 브리감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의 해가를 받아 재현함"

고치시더라”(24절)

그 다음에 그 훌륭한 산상 수훈이 주어졌습니다. 여섯 쪽 반에 걸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아마도 6년 반은 족히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끝난 순간 구세주는 산에서 내려와 다시 병을 고치셨습니다. 곧바로 그분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이어 “귀신들린 자들”(마태복음 8:16)이라고만 언급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간단히, 경전은 그분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무리로 인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그분은 이어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두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배에 오르사 “본 동네”로 건너가십니다.(마태복음 9:1) 그 곳에서 주님은 중풍에 걸려 침상에 눕게 된 한 남자와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 온 여자를 고치시고, (제 생각에 이 일은 신약전서를 통틀어 가장 놀랍고도 아름다운 순간인 듯합니다.) 관리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십니다.

그 후에 그분은 두 맹인의 시력을 회복해 주셨으며, 이어서 한 남자에게서 말할 능력을 뺏아간 악마를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역을 설명하는 신약의 처음 여섯 장의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들리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태복음 9:35)

이것은, 몇 단어만 빼놓고, 우리가 앞서 다섯 장에서 읽은 구절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36~38절)

예수께서 이 열둘을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태복음 10:6 ~8)

우리는 구세주가 위대한 교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정말 그러하며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선교사들에 대해 즉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름은 특정한 부류의 교사, 즉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치료하는 교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침”은 신권의 공식적인 사용이나 병자를 위한 의식 집행,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조직에서 교사로 부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가르침이 영적인 종류의 고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마태의 기록 중 많은 내용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궁핍하고 어렵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행하신 구세주의 성역의 정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구세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고침으로 우리 가르침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실 때, 그저 수업을 하시기보다는 영적으로 눈이 먼 농구 스타가 정말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귀 먹은 동창회 미인이 정말 들을 수 있도록, 혹은 영적으로 발을 저는 학생회 회장이 정말 걸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매우 강력하게 강화시켜서 사탄이 어떤 유혹을 던져도 맞설 수 있고, 그래서 그 순간에 진실로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노력할 수는 없을까요? 조금 더 노력해서 매우



본 왼쪽 그림: 시몬 뉘이, 일어나 걸으려, 유타 아메리칸, 포크, 알투스 파인 아트의 하가를 받아, 개재함, 왼쪽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의 삶은 부자 관원

우리는 구세주가 위대한 교사 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정말 그러하며 그 이상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부름은 특정한 부류의 교사, 즉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치료하는 교사에 대한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고침으로 우리 가르침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강력하게, 매우 영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정말로 홀로 걷고, 홀로 살고 있는, 또는 어두운 밤에 홀로 울고 있는 개인들을 도울 수는 없을까요?

### “그래서, 어떻게는 것입니까?”

아마도 십이사도 정원회 생활로부터 얻은 한 가지 교훈이 제가 이 점에 관한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이 혼동을 피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교사이신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우리가 십이사도 내에서 서로에게 발표를 하거나 일종의 권고 같은 것을 나눌 때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 끝났습니까?”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올려다보시면서 발표자에게(그러면서 넌지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어떻게는 것입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설교와 분리할 수 없는 요소로서 구세주께서 날마다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분의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분의 설교와 권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실제로 생활하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이 변화를 가져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잊혀진 노래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가르침이 문자 그대로 “누군가를 일으켜 올바르게 날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Nat King Cole, “Straighten Up and Fly Right” [1943]). 우리는 그들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날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축복 받기를, 이 삶에서 행복하기를, 다가올 세상에서 구원 받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께서서 관리하십니다.

신약에서 부활 이후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에서 교회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개념을 전해 줍니다. 즉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성임되었으며 그럼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계속 이끌어 나갈 권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시고 난 후 새롭고 작은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이 당면한 황폐한 사태와 고난과 두려움, 혼동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몹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했을 것이며 제자들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놀랄 것도 없이, 교회는 처음부터(최소한 사도행전의 첫 구절부터)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계속 인도된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무서운 혼란과 두려움의 시기에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더 완전한 제목은 “주님이 성임하신 사도들의 삶과 성역에서 성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행적”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이 제목을 들어 보시면 여러분은 왜 누군가가 더 짧은 제목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이 제목이 더 정확한 제목입니다! 누가의 첫 기록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사도행전 1:1~2)

교회의 방향은 똑같았습니다. 구세주가 계신 곳은 바뀌었지만 교회의 방향과 지도력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개의 말이 있던 후에 우리는 성신을 통해 도처에서 주님의 나타내심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에서 십이사도에게 주신 첫번째 가르침은 그들이 “성령(성신)으로 침례를 받으리라”(사도행전 1:5)는 것과 “오직 성령(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8절)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베드로는 교회의 나머지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합해서 백 이십 명이었습니다.(이러한 고난과 반대들이 그들의 수에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백 이십 명이 모였으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성신)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사도행전 1:16) 십이사도에 생긴 유다의 공적을 메우기 위해, 그들은 오늘날 십이사도 정원회와 대관장단이 기도하는 방식과



정확히 똑같은 방법, 즉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사도행전 1:24)였는지 보여 주소서 라고 기도했으며 맛디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교회를 계속 이끌어갈 신성한 인도를 너무도 명확하게 극화시킨 그 첫 번째 장은 단지 2장에 대한 준비일 뿐이었습니다. 그 구절에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특별한 영적인 나타내심과 성령(성신)이 신성하게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지리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되었습니다. 계시가 하늘로부터 왔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 온 집에 가득”(사도행전 2:2)했고 그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 그들이 다 성령(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사도행전 2:3~4)

교회의 대관장이자 선임 사도였던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러한 충만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요엘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사도행전 2:17~18)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그는 더 많은 회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 너희 가운데서 ...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사도행전 2:22, 32~33)

장엄한 구절입니다. 아직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성신)의 선물을 받으”(사도행전 2:38)라고 했으며 그들 중 삼천 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계단에서 일으켜 세워 그가 건강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꾸짖으며 그 사람은 인간의 권능이나 제자들의 경건으로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넘겨 주”어 “죽(인)”(사도행전

3:13~15) 예수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성령을 도구로 하여 여전히 교회를 이끌고 계시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사도행전 3:21) 그럴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오천 명이 더 교회에 가입했을 때, 지역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해 주어야 할 가장 훌륭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성신)이 충만하여”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사도행전 4:8, 10)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분의 사도들의 행적을 이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에 의하여 그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고대나 현대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교훈입니다. 아버지와 이들은 성신을 통해 그분들의 영향력을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개개인에게 미치시면서 여전히 이 사업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 영으로 가르침

성령으로 가르치십시오. 그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전에서 정의한 것처럼 “다른 방법”(교리와 성약 50:17)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영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약전서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경전의 메시지입니다. 그 성스러운 기록들에서 얻는 영적인 경험들은 신약 시대의 회원들에게 그랬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올바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리와 성약 42:14) 이 구절은

조금 더 노력해서 매우 강력하게, 매우 영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정말 홀로  
견고, 홀로 살고 있는, 또는 어두운 밤에 홀로 울고 있는 개인들을 도울 수는  
없을까요?



맨 왼쪽 그림: 델 피스, 아이도의 딸; 왼쪽 그림: 칼 헤인리히 블로흐,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덴마크 프레드릭스보르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계단에서 일으켜 그가 건강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꾸짖으며 그 사람은 인간의 권능이나 제자들의 경건으로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가르칠 수 없다, 혹은 매우 수준이 떨어지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강한 강한 어투입니다. 이것은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Ye shall not teach(가르치지 말라)”에서 “Ye”라는 말을 “Thou”로 바꾸면 시내산에서 주어진 어투가 됩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생들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베드로나 바울, 요셉, 브리감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처럼 말입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알거나 인식하도록 특권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으로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생각한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겐세마네와 갈보리 그리고 승천이라는 최고의 절정에 달하는, 거의 가르치기 불가능한 순간들에 다다르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스도는 끝까지 충실하셨다

먼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기진 맥진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끝까지 충실하셨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슬퍼하사 ...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마태복음 26:37~38) 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일부러 제자들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혼자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홀로 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으시고, 사도들은 그분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었드”(마태복음 26:39)렸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주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누가복음 22:44)고 말했습니다. 마가는 그분이 땅에 었드리어 “아빠 아버지여”라고 울부짖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바로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마가복음 14:36)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세요.”라는 자녀의 간청을, 더군다나 이렇게 완전한 자녀의 간청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 기도 전체는 만약 가능하다면 이 시간이 그 계획으로부터 거두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다른 길이 있거든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라고 기록했고, 누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누가복음 22:42)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분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 그것은,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상 성역을 하시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 간에 나는 신성한 대화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대륙에서의 그 마지막 선언에서부터 우리는 신세계에서의 이 첫번째 선언을 듣습니다. 성전에 모인 니파이인들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 예수 그리스도라 ...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11:10~11) 그것은 자신에 대한 그분의 소개, 즉 자신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것이라고 주님이 판단하신 선언입니다.

만약 반원들에게 구세주께서 그들을 위해 치르신 비할 데 없는 희생과, 그들의 죄에 대해 주님이 치르신 값과 슬픔에 답해 한 가지 주요한 결심을 하게 할 수 있다면 순종해야 할 필요성, 즉 그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어려운 결정의 시간에 “아버지의 뜻”(니파이삼서 11:11)에 따라야 할 필요성을 남겨 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이나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추구하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덕성보다도, 위대한 설교보다도, 심지어 병 고침보다도 더 구세주께서 그분의 성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하셨던 것은 그분이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구세주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하신 메시지는 우리의 제물이 그분의 제물처럼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니파이삼서 9:20, 교리와 성약 59:8 참조) 우리는 편협한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따르도록 간청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주님과 견주어 보는 불경함을 범하지는 말되, 지나갈 수 없는 그 잔은 그분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훨씬 약한 방법으로 훨씬 약한 정도로 읊니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속죄의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만약 이미 너무나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고 느낀다면,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려는 성향”을 갖고 계시며, 그리스도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선함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Lectures on Faith [1985], 42쪽) 자비는 바로 그 자매 격인 회개, 용서의 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중심에 있습니다.

복음의 모든 것은 우리가 진정 원하지만 한다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지만 한다면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삶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된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라고 명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어떤 도움을 주실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길을 걸으셨으며, 우리에게 그분이 하신 일을 하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여행을 훨씬 더 쉽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날카로운 돌이나 걸림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아시며 어느 곳에 가시와 영경귀가 가장 무성한지도 아십니다. 어느 곳에서 길이 위험해지는지 아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어디서 갈라지고, 언제 밤이 오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종류의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들의 약점에 따라 어떻게 구해 주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앨마서 7:11~12참조) 구한다는 말은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뻗치신 자비로운 팔을 우리가 받아들여려고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실 것이라는 것과, 심지어 지금도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그분은 우리를 잡아 주고 강화시키기 위해 그 곳에 계십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 그 곳에 계시며,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나날들이 아무리 어두워 보일지라도, 세상의 구세주는 훨씬 더 어두운 나날들을 겪으셨습니다. 그 날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부활된 육체에서도, 즉 완전한 육체에서도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들—바로 표적들을 간직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원할 경우, 그 고통스러운 일이 순수하고 온전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며,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과, 문제들은 지나가고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표적입니다. 우리 영혼의 대장이 상처를 입으신 그리스도라는 것과, 우리를 용서하면서 생긴 상처와, 사랑과 겸손으로 생긴 부상, 순종과 희생으로 찢기신 살을 아직도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 상처들은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자국들을 보게 하고 만져 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전이 아니라면, 확실히 그 때에, 우리는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멸시를 받아 버림받[고] ...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었고,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이사야 53:3, 5)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금년에 여러분께서 위대한 신약전서와 그것이 증거하는 그분의 삶에 몰두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는 경전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배우며 그것들이 참됨을 서로에게 증거하는 훌륭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

2000년 8월 8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열린 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자 대회 말씀에서 발췌



맨 왼쪽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십자가에 달리심, 덴마크 프레드릭스보흐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왼쪽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갓세마네의 그리스도

그분의 덕성보다도, 위대한 설교보다도, 심지어 병 고침보다도 더 구세주께서  
그분의 성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하셨던 것은 그분이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 십대를 이끄는 십대들

살롯떼 케차페로

**다**음의 내용은 필리핀에서 와드 청년 회장단으로 봉사하던 시절, 내게 도움이 되었던 아이디어들이다. 아마 이 원리들은 지도자로 봉사하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 \* 시간을 할애한다. 자신이 맡은 책임에 시간을 바친다. 그렇게 한다면 거의 어떤 일이라도 완수할 수 있다.
- \* 친절하게 행동한다. 대접 받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진다. 우정의 정신을 키운다. 그들의 문제와 성공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한다.
- \*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 여러분이 이끄는 사람들을 존경심을 갖고 대한다. 각 개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며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 \* 희생한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고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과 의견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 공부한다.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공부한다. 여러분이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통찰력을 나누는 데 경전과 다른 양서들이 도움이 된다.

\* 재능을 나눈다. 자신의 빛을 말 아래 숨기지 않는다.(마태복음 5:14~16 참조)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 권고를 구한다. 부름을 수행할 때 회장단의 다른 일원들과 부모님, 성인 지도자들,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 지도와 지지를 구한다.

\* 자신의 최선을 다한다. 과도한 중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주님이며, 그분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

살롯떼 케차페로는 필리핀 말롤로스 스테이크 플라자 제2와드의 회원이다.



##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교리와 성약 38:30:**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준비를 하면서 최소한 네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오랫동안 지침을 받아 왔습니다. 첫째, 적절한 교육을 받으십시오 ... 둘째, 여러분의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저축하십시오 ... 셋째, 과다한 빚을 피하십시오 ... 넷째,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획득하여 저장하십시오”(“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리아호나*, 1996년 1월호, 36쪽).

**대관장단:** “교회 회원들은 연명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식량을 비축하는 것에서부터 가정 비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회원들에게는 이러한 비축을 할 만한 돈이나 장소가 없는가 하면, 어떤 회원들은 법률상 일 년분의 식량을 비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비축해야 합니다. 일 년분의 식량을 마련할 자원이 없는 가족들은 우선 몇 개월분의 식량이라도 비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들은 신중해야 하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비축 노력을 극단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깊게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 예금뿐 아니라 1년분의 기본 식량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관장단 서신, 2002년 1월 20일).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898~1988), 대관장단 제1보좌:**

“지혜로워서 진리를 받아 들이며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



... 잘리워 불 속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딜 것이요 [교리와 성약 45:57].

...

“... 모든 회원은 안수례를 받았으며,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시다 ... 내가 성신을 받고 그의 인도를 따른다면 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보호받아 끝까지 견딜 사람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며, 성신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성도의 벗*, 1982년 1월호, 5~6쪽).

**브리감 영 대관장(1801~1877):**

“우리의 걱정을 한 가지 일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청결하게 하며, 우리에게 속히 다가오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시대를 기다리며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십시오”(Deseret News Weekly, 1861년 5월 1일, 65).

**교리와 성약 6:34, 36:** “두려워 말라. 어린양 떼들아, 선을 행하라. 세상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케 하라. 너희가 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라 ...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

■ 우리는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우리가 세상적,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

# 땅 끝까지

리차드 엠 롬니

“하나님이 ...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욥기 28:23~24)

**아** 르헨티나로 가라. 그런 뒤 남쪽을 향해 가라. 계속, 계속해서 가라. 마젤란 해협을 육지를 지나, 바다를 건너 티에라 델 푸에고 섬으로 가라. 계속해서 가라. 섬의 한 끝에 다다르게 되면 멈추라. 이제 여러분은 세계 최남단의 도시로 알려진 우스아이아에 와 있다. 이 곳 주민들은 이렇게 남쪽 끝에 위치한 이 도시를 일컬어 보통 “세상의 끝”이라고 말한다.

거칠게 솟은 빙산들이 바다로 부서져 내리는 이 빙하 지역에도 일년에 두세 달은 따스한 날씨가 계속 된다. 나머지 달들은 춥고, 폭풍이 치며, 어둡다.

우스아이아는 아마 사람들이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사는 곳으로 떠올릴 첫 번째 장소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곳의 교회는, 살아 있으며, 번성하고 있다. 우스아이아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사진 촬영: 리차드 엠 롬니



**복** 음이라는 공동의 유대로 인해 수잔 마르티네스와 루벤 모레시,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위)은 화목하게 살고 있다. 히메나, 미카엘라, 곤잘로 마르티네스, 마누엘과 미카엘 모레시.(아래, 왼쪽부터)

# 마

티아스,  
파트리시아,  
파올라

키로가(아래, 왼쪽부터)는 마약이나 비행에 빠져 있는 다른 동년배 청소년들과는 달리 교회 안에서 행복을 찾았다.

퍼지며”라는 예언의 성취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교리와 성약 65:2)

## 어머니에게 남편을

히메나 마르티네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몇 년 전, 히메나와 그녀의 언니 미카엘라, 그리고 동생인 곤잘로는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살고 있었다. 히메나는 당시 열다섯 살이었다. 그녀는 마당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일을 소홀히 했어요.” 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길 건너편에 살던 다니엘 가리도라는 친절한 이웃이 도움을 주었죠. 며칠 후에는 그가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왔어요. 그분들은 매우 열심히 일했고 마당은 아주 아름다워졌지요.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니엘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가르치고 싶다고 제안했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깨달음을 얻는 여행의 시작이었다. 선교사들과 공부를 한 뒤, 히메나의 어머니가 먼저 침례를 받았다. 자녀들도 이어 그녀의 모범을 따랐다. 히메나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기로 결심했죠. 점점 더 복음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듯한 게 있었어요—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했고, 성전에서 인봉 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무도회에서, 마르틴 모레시라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아버지께서 혼자 살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그래? 우리 어머니는 남편이 필요한데! 두 분이 만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겠는걸’ 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버지가 2,000마일(3,200킬로미터)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어머니를 위해 새아버지를 찾았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 후, 스테이크





## 내 마음속의 커다란 기쁨

**우**스아이아와 같이 외딴 지역에서의 삶은 외로울 수 있다. 일부 젊은이들은 술과 마약, 부도덕한 행동에 의존하며 마침내 절망스런 결과를 맞기도 한다.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따르는 데에서 행복을 찾았다. 2년 전에 침례를 받은 키로가 가족 중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교회 회원이 되어서 매우 기뻐요. 제가 정말 참된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순간 저를 도와 주고 계시다는 것을 가슴 속 깊이 느끼고 있어요. 새로운 회원으로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교사님들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회원들은 아주 친절합니다.” 열네 살인 마티아스의 말이다.

합창 연습 모임에서 마르틴을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오신대. 너희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는데!’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마르틴이 아버지와 함께 나왔으며 저는 어머니와 함께 나갔습니다. 그 날 저녁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마르틴의 아버지인 루벤 로레시 씨는 매우 친절하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올곧고 충실한, 하나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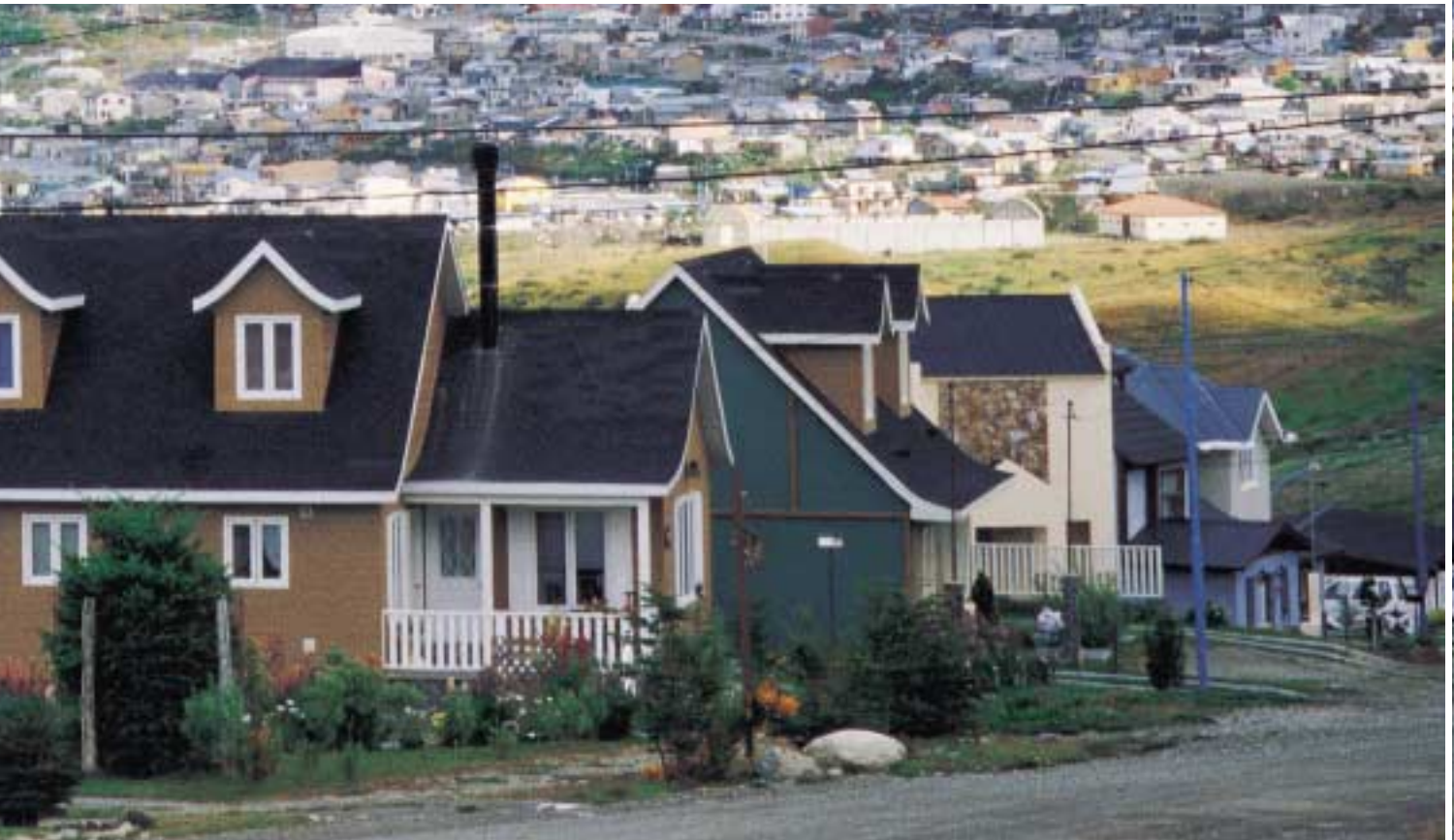
열여덟 살 된 그의 누이 파트리시아도 동의한다. “말일성도가 되면서 제 인생은 모든 면에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 지금 제가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의 존재를 느껴 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청년회에 참석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여섯 살인 파올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침례를 받기 전에,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 커다란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침례를 받았으며 성신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 저는 행복을 느끼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 개월 반 뒤에, 루벤과 수잔나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히메나와 미카엘라, 곤잘로 마르티네스도 부모에게 인봉되었고, 그들은 부모를 따라서, 새로운 남편인 마누엘과 미카엘 모레시가 기다리고 있는 우스아이아로 이사했다.(나이 많은 세 자녀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이제 저는 세상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시온이



## 빛 줄기

**모** 레시, 마르티네스, 그리고 키로가 가족 이외에도 우스아이아에는 많은 십대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있다. 카바니아스 가족에는 네 명의 십대들이 있으며 그들은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

다음은 열네 살인 플로렌시아의 말이다. “저는 여덟 살 때부터 교회 회원이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 인생에 복음이 있고, 성전에서 인봉을 받는 목표를 가족이 함께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열다섯 살인 안드레아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오늘날 예언자요 선견자이며, 계시자인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물문경의 출현은 어려운 시기에 번역된,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요셉 스미스는 커다란 신앙으로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열일곱 살인 에스테파니아는 “얼마 전에 주일학교에서 물문경에 대해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전을 자세히 읽어 보아야 했는데요, 그러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이 그 곳에 있는 것처럼 상상해 보았어요. 니파이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물문이 느낀 느낌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전 예언자들의 간증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경전을 공부해 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당장 시작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열여덟 살인 사브리나는 그녀가 열 살이었을 때 가정의 밤에 자매 선교사들이 오던 일을 기억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단순하면서도 확고하게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증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고 말했죠. ‘나더러 무릎을 꿇으라고?’ 전 그렇게 생각했죠. 며칠 후에, 어머니는 제 여동생들과 저에게 함께 산책을 가자고 하셨어요. 날씨도 화창했고, 가족들과 산책을 가고 싶었지만 뭔가가 저를 막았습니다. 그 때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물문경이 참된 책임지 알게 해 달라고 간구드렸죠. 제가 교회에서 배운 원리들이 참된 것인지도 여쭙어 보았습니다. 5분이 지나갔어요. 기도를 끝낸 뒤에도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빛 한 줄기가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집은 어두웠거든요. 부엌에 커튼이 없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로 빛이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방식으로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참된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왕국이 땅 사방으로 넓혀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중 한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돌보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

우스아이아에 사는 다른 청소년들과 이야기해 보라. 그들이 교회와 교회가 가져다준 축복에 대해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열두 살인 보리스 자파타는 모로나이의 말처럼 복음이 자신에게 “더욱 아름다운 처소 곧 하나님의 우편에 거하리라는 소망”(이더서 12:4)을 갖게 해주었다고 말한다. 열여섯 살인 후안 프라우는 세미나리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매일 경전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열여덟 살인 미카엘라 마르티네스는 “학교 친구 중 한 명인 엘레나 아알다와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애가 침례 받았을 때 저는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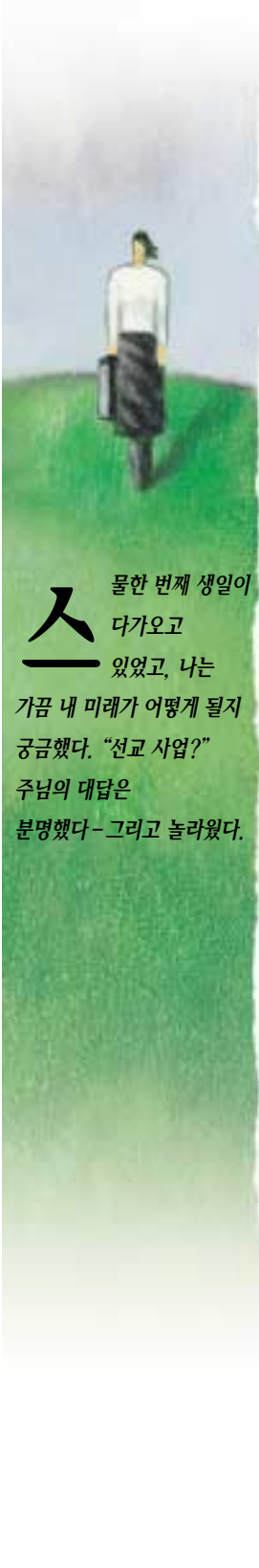
행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라고 말했다.

이 곳 지구의 끝에서, 우스아이아 청소년들은 복음의 훌륭한 빛을 받았다. 그리고 그 빛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받아들이고자 하는 누구와라도 기쁘게 나누고 있다. ■

**플** 로렌시아,  
안드레아,  
에스테파니아,  
사브리나, 카바니야스는  
보리스 자파타, 후안  
프라우(아래, 왼쪽부터)와  
마찬가지로 우스아이아  
말일성도 청소년 그룹의  
일원이다. 이들의 단합은  
땅끝에 있는 이 도시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스**물한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가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선교 사업?”  
주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 그리고 놀라웠다.

내게 응답으로 온 느낌은 ‘아니다’였다. 그런데 주님은 왜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내가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없어서일까?

로렐리 바셋 리빗

**나**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을 받기 위해 성전에 앉아 기다리며, 기도를 드렸다. 당시 스무 살이었던 나는 알고 싶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해야 하나? 그에 대한 응답은 ‘아니다’였다. 그러나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다. 마치 찬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쓰거나 한 것처럼, 갑자기 온 몸이 떨려 왔다. 내게 온 응답은 ‘아니다’였다. ‘선교 사업은 아니야.’ 젊은 여성들에 대한 선교 사업의 기대가 젊은 남성들에 대한 기대와는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혼란스러웠다. 왜 영은 내게 선교 사업을 행하러 나가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내가 복음을 잘 전파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인가?

내 친구들 중 몇 명이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 스물한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가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나는 “아직 접견하고 선교사 추천서를 낼 시간이 있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시기에,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다. 어머니는 울먹이시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다. 어머니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이었다.

한 달 후, 여름을 보내기 위해 미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화학 요법 치료를 받느라 몹시 쇠약해져 계셨다. 나는 자질구레한 일들과 식사 준비를 하는 등 집안일을 거들었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두려웠다. 집안일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동안의 어머니의 수고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다. 나는 식탁 위에 먹을 만한 저녁을 가까스로 올려놓는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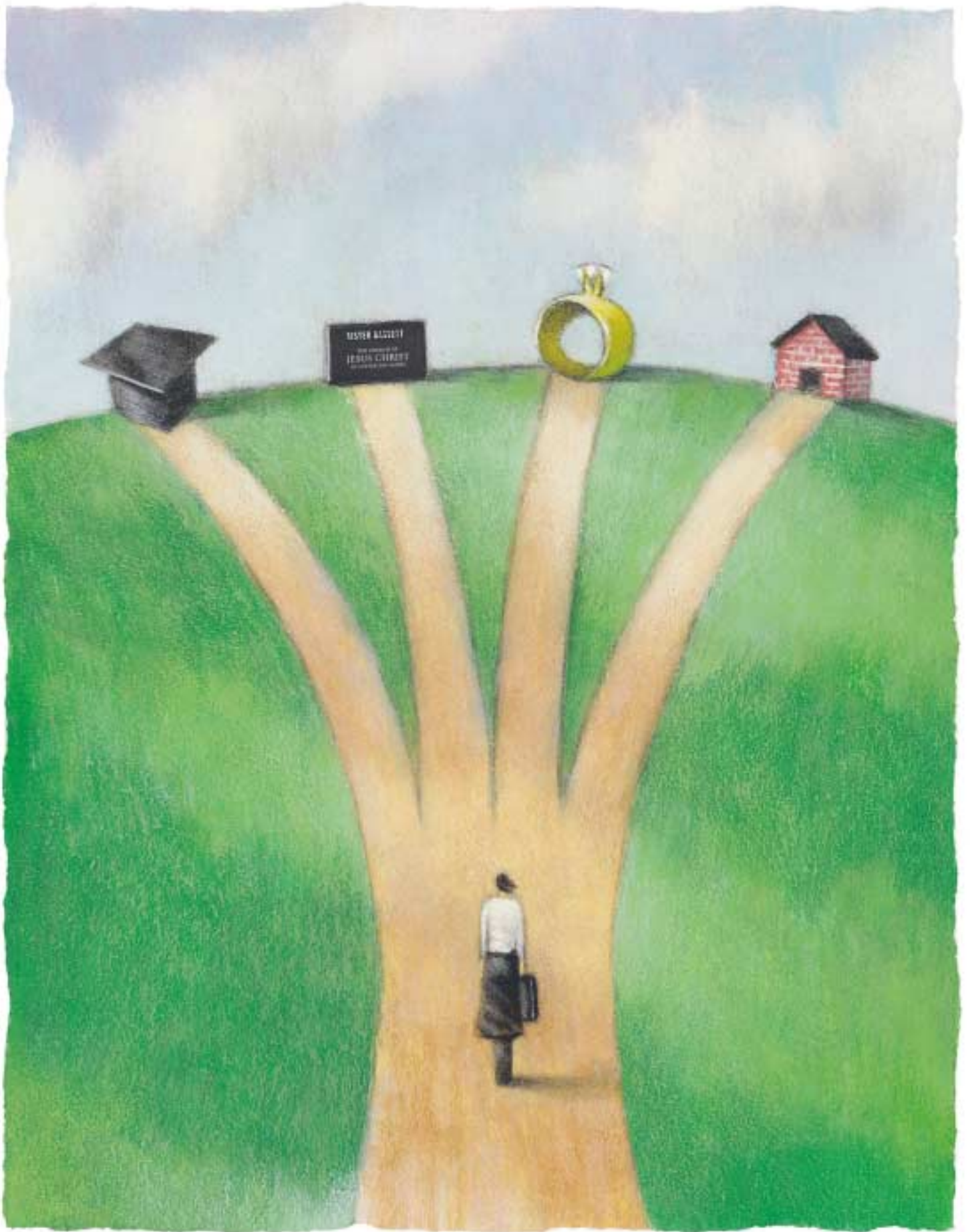
다행히도, 와드 회원과 동네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어머니는 계속 치료를 받으셨고,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며, 함께 체스도 두고, 경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내게 털어놓으시고, 간증도 나누어 주셨다.

그 해 여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다. 나는 현재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가족들이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그 해 여름 내내 나의 간증은 커졌고, 평생 동안 알아 온 와드 회원들과는 더욱 좋은 친구가 되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더욱 가까워졌으며 우리 가족의 유대가 죽음을 넘어서도 영원하리라는 것을 알고 위안을 받았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한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족에게 봉사하도록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

로렐리 바셋 리빗은 워싱턴 벨뷰 스테이크 벨뷰 제1와드의 회원이다.

편집자 주: 치료를 받은 후, 저자의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다.



심화: 그레그 힐리

# John Baylon

## 진리의 수호자

칼라 시 에릭슨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교회 제3대 대관장으로서  
존 테일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흔들림 없는  
간증을 지니고 있었으며  
가장 큰 시련의 시기에  
교회를 인도했다.

**존** 테일러는 1808년 11월 1일에 영국 웨스트모랜드 군의 한 작은 마을인 밀른소프에서 태어났다. 부모인 제임스 테일러와 아그네스 테일러에게는 10자녀가 있었으며, 존은 둘째 아들이었다. 그들은 성경 공부와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대가족을 키웠다. “어린 테일러는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었다. … 영은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는 그의 마음에서 널리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꿈과 시현에서도 자주 나타났다. 어린 소년이었을 적에 그는 시현을 통해 입에 나팔을 불며 열방에 말씀을 전하는 하늘 천사를 보았다. 그는 이 시현의 뜻을 나중에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sup>1</sup>

17세에 그는 성공회를 떠나 감리교의 평신도 전도사가 되었다. 한 번은 그가 지역 교회 회원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가던 길에 멈추어 서서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야만 한다는 강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sup>2</sup> 그는 이 느낌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존 테일러는 1832년에 영국을 떠나, 1830년에 앞서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가족을 따라 그 곳으로 여행을 했다. 그 곳에서 그는 레오노라 캐넌을 만나 결혼했다. 그는 또한 캐나다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도였던 팔리 피 프랫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났다.

프랫 장로가 전도를 한 감리교도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금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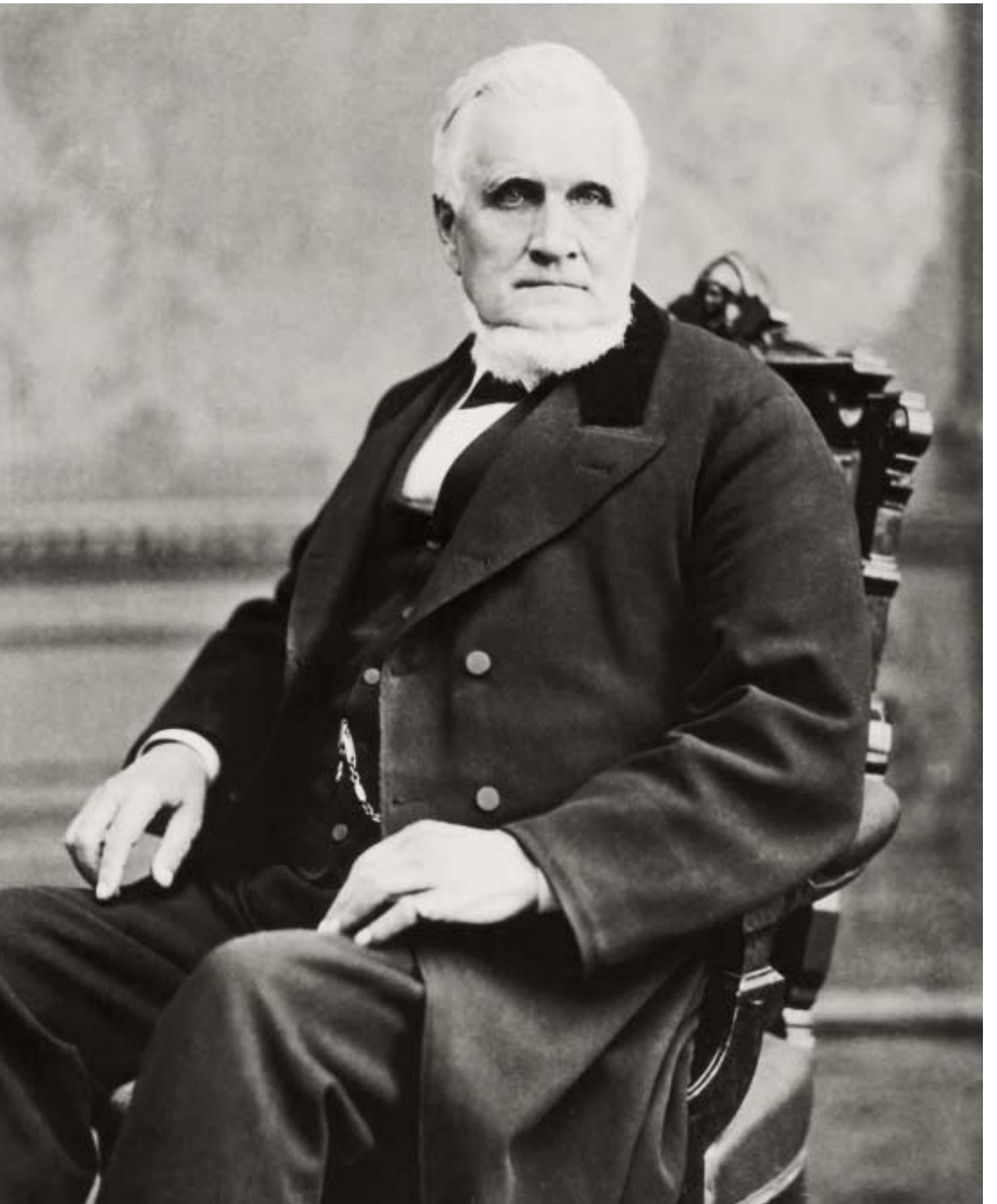
관한 이야기를 할 때까지 그의 메시지를 흥미 있게 들었다. 몇몇 사람은 더 이상 듣기를 거부했다. 존 테일러는 그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

“우리가 이 곳에 모인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교리를 충분히 조사했으며, 그것들이 모두 거짓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물론 교리를 조사해 보기를 꺼리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프렛 씨는 우리와 일치되는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 저는 그분이 주장하는 교리와 권능에 대해 좀더 조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조사한다면 기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면, 저 혼자서라도 해보겠습니다. 만일 이 종교가 진실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면,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이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sup>3</sup>

존 테일러는 계속해서 복음을 세세하게 살폈으며, 레오노라와 함께 1836년 5월 9일에 침례를 받았다. 훗날 존 테일러 대관장은 이렇게 언급했다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대관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는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연속 출판물의 네 번째로서 2003년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이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영원한 진리의 원리들을 거절할 수 없다.'"<sup>4</sup>

### 진리의 수호자

진리, 곧 영원한 진리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기초입니다.<sup>5</sup>

존 테일러는 캐나다에서 2년 동안 교회의 감리 역원으로 봉사했다. 1837년 3월에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커틀랜드로 갔다. 이 때 교회는 커다란 박해를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몇몇 사도들마저 배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프랫 장로가 존 테일러에게 다가와서 예언자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표명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팔리 형제님,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놀랍군요. 캐나다를 떠나기 전, 형제님은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 것에 대해 간증하셨습니다. ... 팔리 형제님, 제가 따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형제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통해 저는 그분께로 인도되었으며, 저는 그 당시 형제님이 갖고 계시던 것과 똑같은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육 개월 전에 참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지금도 참됩니다. 그 당시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다면, 그는 지금도 예언자입니다".<sup>6</sup>

1838년 12월 19일, 30세의 존 테일러는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사도로 성임되었다. 브리감 영 장로와 히버 시 킴블 장로가 리버티 감옥에 있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지시에 따라 성임을 집행했다.

테일러 장로는 당시 교회의 주요 출판물이었던 타임즈 앤드 시즌스의 부편집자로 일했으며, 나중에는 편집자로 임명되었다. 나부에 있던 존 테일러의 집은 인쇄소에 인접해 있었다.



교회에 반대하는 성난 군중과 대면한 테일러 장로는 자신의 말씀으로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켰으며 담대하게 "여러분, 타르와 깃털을 갖고 오십시오. 희생 제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인물: 팀 피슨, "준비되었노라", 크레이그 데이먼드가 찍은 인쇄기 사진, 에릭 다우들, 요셉의 도시, 오른쪽: 그림: 로버트 티 배렛, 리버풀에서 전도하는 존 테일러, 크리스티나 스미스, 물문경

### 자유의 승리자

우리는 자유의 권리,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sup>7</sup>

한번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인근에서 테일러 장로가 많은 사람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 모임이 시작되기 직전에 몇몇 형제들이 테일러 장로에게 와서 일부 사람들이 그에게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꽂기로 계획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고 했다.

테일러 장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회중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시작했다.

“저는 지금 제 주변에서 독재자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속박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자유를 누리며, 그것을 후손들에게 남겨 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버리겠다며]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맹세했던 고귀한 선조들의 후손을 보고 있습니다.

“... 저는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견해 때문에 저에게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꽂으려 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조들에게서 상속 받은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분들이 피흘려 얻은 축복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자유입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의 조끼를 열어 젖히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타르와 깃털을 갖고 오십시오. 희생 제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sup>8</sup>

청중은 잠잠해졌으며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존 테일러는 잠시 동안 가만히 있더니 권세를 가지고 거의 세 시간 동안이나 전도를 계속했다.

### 선교사로서의 경험

*[선교사들은] 소중한 복음의 씨앗을 지닌 자비의 천사들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sup>9</sup>

일단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존 테일러 장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는 종종 가족을 어려운 상황에 두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 믿으며 1839년에서 1857년까지 모두 합해서 87개월 동안 여러 차례 선교사로 봉사했다.

31세에 영국 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한 테일러 장로는,



영국 제도에서 자신의 첫번째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존 테일러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판된 최초의 물문경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다.

아일랜드와 맨섬에서 복음을 전도한 최초의 선교사였다. 그는 또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물문경을 최초로 출판하는 일을 도왔다.

영국에서 첫번째 선교 사업을 하고 돌아온 그는 아내 레오노라가 매우 아픈 것을 알았다. 테일러 장로는 다른 장로들을 불러서 그녀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을 했다. 그들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 레오노라는 건강을 회복했다.

테일러 장로는 가족이 겪는 고통을 크게 염려했다. 그러나, 일이 힘들수록, 테일러 장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더욱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직접, 지갑이나 전대도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분께서 나를 잊으신 적이 있었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 나는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 받았다. 이에 대해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싶다.”<sup>10</sup>

선교 사업을 마치고 다시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이에 테일러 장로는 당시 교회의 주요 출판물이었던 타임즈 앤드 시즌스의 부편집자로 지명되었다. 그는 일 년 후에 편집자로 임명되어 성도들이 나무에서 쫓겨나던 1846년까지 그 일을 계속 했다. 그가 갖고 있던 집필의 재능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축복이었다. 그는 또한 예술, 과학, 종교, 그리고 당시 내부의

예언자 요셉과 그의 형 하이람이 순교하고 나서 여러 날 후에, 테일러 장로는 그의 가슴을 향해 날아온 총탄 하나가 회중 시계의 유리를 깨뜨리면서 그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반 소식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나부 네이버*라는 또 다른 신문의 편집자가 되었다.

성도들이 변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부에서의 모든 일이 다 잘되는 것은 아니었다. 박해가 커지고 있었으며 예언자 요셉은 전 미주리 주지사였던 린번 더블류 보그스의 암살 기도 사건의 공범으로 이미 고소된 상태였다. 예언자에 대한 테일러 장로의 헌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편집인으로 있던 신문의 사실을 통해 그에 대한 지지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폭도와 배도자들은 미주리 주민의 마음에 분노를 선동했다.



“... 테일러 장로는 문 옆에 자리를 잡았으며, 폭도들이 출입문으로 들이닥치며 총을 발사할 때 ...

무거운 보행용 지팡이를 가지고 창구들을 쳐서 그 방향을 바꿨다. ...

“... 연속해서 출입문에는 총의 숫자가 더해져 가고 남자 어른의 팔뚝 같은 굵은 불꽃이 내뿜어져 나왔으나, 테일러 장로는 침착하게, 그리고 기민하고 의연하게 그 살인자들의 총구를 아래로 쳐 내렸다.

“잘하고 계십니다, 테일러 형제님, 할 수 있는 대로 총을 쳐내서 방향을 바꿔 보세요’라고 요셉이 그의 뒤에 서서 말했다.”

그러나 발사가 계속되고 더 많은 폭도들이 계단으로 밀고 올라오자 테일러 장로는 열린 창문을 향해 뛰었다.

“[테일러 장로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는 순간 출입문 쪽에서 발사된 총탄 하나가 넓적다리 중간쯤에 박혔다. 그는 무기력하게 창가에 쓰러져 감옥 밖으로 떨어질 뻔했으나 밖에서 날아든 다른 탄환이 그의 조끼 주머니에 있는 시계를 맞추어 그를 뒤쪽으로 넘어뜨려 방안에 쓰러지게 했다. ... 몸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창문 가까이 있던 침대 아래로 기어갔다.

“그러는 동안 그는 다른 세 발의 총탄을 맞았다. 하나는 왼쪽 무릎 조금 아래에 맞았는데, 그것은 결국 빼내지 못했다. 다른 한 발은 왼쪽 엉덩이를 맞했는데 어른 손바닥 만한 살이 떨어져 나가 피와 뒤통이 되어 벽에 튀었다. 또 하나는 왼쪽 팔 아래 부분 손목 바로 위로 들어와서 관절을 관통하여 손바닥에 박혔다.”

고통 속에 누워 있는 동안 그는 예언자가 창문에서

## 순교

*선견자, 선견자, 선견자 요셉!*

*내 사랑하는 예언자를 노래하리.”*

1844년 6월 27일 테일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윌라드 리처즈 장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 그리고 예언자의 형 하이람 스미스는 주지사의 전갈을 기다리며 카테지 감옥에 있었다. 네 사람이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테일러 장로는 찬송가 “슬픔에 잠긴 나그네”를 불렀다. 분위기가 어둡고 울적했다. “곧바로 하이람이 그에게 그 노래를 다시 한 번 불러 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이람 형제님, 노래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군요.’

“아, 괜찮습니다. 노래를 시작하면 그 노래에 깃든 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래를 끝내고 감옥의 앞 유리창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얼굴에 칠을 한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 문 앞에 이른 폭도들은 문이 잠겨 있다고 생각하고는 열쇠 구멍으로 총을 발사했다. 하이람과 리처즈 박사가 뒤로 넘어졌으며 즉각 또 다른 총탄이 문을 뚫고 들어와서 하이람의 얼굴에 명중되었다. 동시에 총탄 하나가 ... 그의 등에 박혔다. 그는 넘어지며 이렇게 외쳤다. ‘나는 죽노라’ ...

뛰어내렸다고 폭도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리차드 박사는 … 테일러가 가장 두려워 했던 일, 즉 예언자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테일러 장로가 말했다. ‘그 소식에 나는 멍해지고 외롭고 병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sup>12</sup>

여러 날 후에 테일러 장로는 그의 가슴을 향해 날아온 총탄 하나가 회중 시계를 맞춰 우리를 깨뜨리면서 그가 감옥 창문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님께서 특별한 자비의 행동으로 나를 구해 주셨음을 느꼈다. 내가 죽을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으며 지상에서 수행할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sup>13</sup>

순교의 증인으로서 테일러 장로는 현재 교리와 성약 135편에 있는 강력하고 감동적인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3절)

## 시련과 역경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의 학교라고 부릅니다.<sup>14</sup>

성도들은 강제로 나부를 떠나야 했다. 테일러 장로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일단의 개척자들이 1847년 10월 5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검은 메뚜기 떼가 창궐한 일을 겪고 나서 8월에 성도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파종과 수확, 그리고 집 짓는 일에 대한 걱정 속에서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존 테일러의] 힘에 의지했다. 절망이 정착지를 뒤덮었을 때 그는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다. 약한 사람들이 흔들릴 때 그들을 강화시켰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떨 때 그들을 격려했다.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북돋았다.”<sup>15</sup> 그의 힘은 항상 그곳에 있었으며 정신적으로 성도들을 강화시키고 도움을 주었다.

존 테일러는 71세에 대관장이 되었다. 지지 받던 1880년 10월 10일, 그는 시련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

“제가 만일 주님이라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관한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저는 … 시련을 겪는 것이, 마치 당밀 주위에 붙어 있는 파리 떼와 같이, 성도들 주위에 달라 붙어 있는 비열하고 타락한 것들을 정화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sup>16</sup>

## 고결성과 성품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시온의 대업에 대한 여러분의 고결성 때문입니다.<sup>17</sup>

테일러 대관장이 확고하게 유지했던 한 가지 주제는 정직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제7대 대관장이었던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1856~1945)은 테일러 대관장이 어떤 두 친구 사이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전해 주었다.

“두 사람은 사업상의 문제로 다투었고 결국에는 존 테일러 대관장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조정해 달라고 도움을 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

“… 그들은 … [테일러 대관장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테일러 대관장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 시온의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테일러 대관장은 참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우리의 신성한 찬송가를 감미롭게 그리고 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두 형제에게 찬송가 한 곡을 불러 주었습니다. 그 효과를 보고 그는 시온의 찬송가를 한 곡만 들은 적은 결코 없었다며, 한 곡 더 듣고 싶다고 말하고는 자신이 노래를 하는 동안 잘 들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즐기는 듯이 보였으며, 두 번째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는 노래를 홀수로 불러야 행운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며, 한 곡을 더 부르겠다는 동의를 그들에게서 받아 한 곡을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형제님, 여러분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를 용서하시고 한 곡 더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가 끝나면 여러분의 사정을 들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테일러 대관장이 네 번째 노래를 끝냈을 때 그 형제들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서 악수를 나누고는 테일러 대관장에게 이렇게 방문을 해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sup>18</sup>

### 아버지의 역할

우리는 모두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인생의 법을 가르칩시다.<sup>19</sup>

테일러 대관장의 아들 중 하나인 모세스 더블류 테일러는 가족의 추억을 통해 부친의 성품을 묘사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가을에 과일을 거두어들일 때, 아버지는 종종 바구니를 살펴

1880년의 대관장단: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 제1보좌; 존 테일러 대관장; 조셉 에프 스미스 부대관장, 제2보좌. 배경: 테일러 대관장은 글 쓰는 재능을 활용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널리 전했다.

보시고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선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십일조를 내고 확실하게 다 바치도록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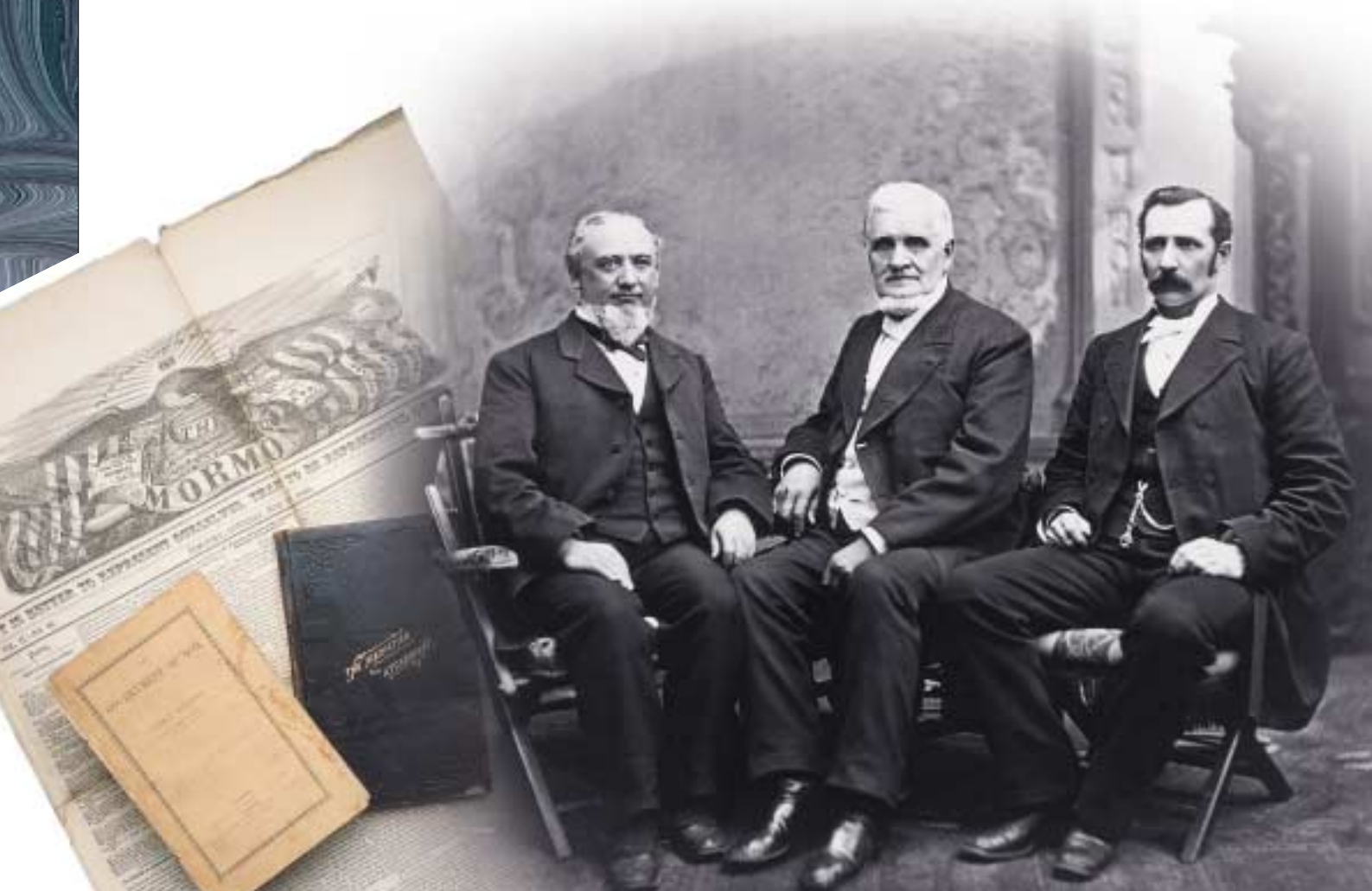
“나무를 심을 때 부친께서는 한 그루 한 그루가 곧게 자라도록 이랑을 곧게 내는 일에 세심한 신경을 쓰셨다. 뿌리 주위로 구덩이를 메울 때 우리는 잔가지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했으며 하나하나를 제 자리에 주의 깊게 놓아야 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작은 뿌리들을 잘 살피거라, 큰 뿌리들은 알아서 잘 자랄 게다.”

“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께서는 나를 부르시더니 다음과 같은 권고를 주셨다.

“올바른 일을 행하거라. 네 종교에 따라 생활한다면, 나쁜 사람일지라도 선한 사람처럼 그 일에 대해 너를 존중할 게다.”

“주신 말씀이 그것뿐이었으나 나에게 강한 감명을 주었으며,



테일러 대관장은 1884년에 유타 로간 성전을 헌납했다. 삽입 그림: 성전 내부의 문 손잡이는 개척자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면에 세심하게 신경을 쓴 한 예이다.



테일러 대관장의 슬픈 사망 소식이 대중에게 발표되었을 때, 그의 보좌들은 데저렛 뉴스에 이러한 글을 실었다.

“방금 우리의 곁을 떠나신 사랑하는 대관장만큼 진리에 충실하고 확고부동하면서 고결성과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용기와 육체적 용기를 나타내 보인 사람은 지상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업과 연관된 것이라면 결코 두려움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 그분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분을 보고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을 만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뚜렷한 성품 가운데는 두려움 없는 용기, 굴하지 않는 확고함이 있었으며 그것이 다른 사람과 그분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

“우리가 비록 여기서 그분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여전히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갈지라도, 의를 위해 그리고 진리를 위해 그들의 가슴에서 고동치는 사랑은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sup>23</sup> ■

칼라 시 에릭슨은 유타 바운티폴 물러 파크 스테이크 물러 파크 제8와드의 회원이다.

주

1. B. H. Roberts, *The Life of John Taylor*(1963), 27~28쪽.
2. *Life of John Taylor*, 28쪽.
3.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209~210쪽.
4.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215쪽.
5.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213쪽.
6.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77쪽. 프렛 장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충실하게 생활했다.
7. *Deseret News*, 1882년 4월 26일.
8.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221쪽.
9.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74쪽.
10.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74쪽.
11. John Taylor, *The Gospel Kingdom*, sel. G. Homer Durham(1943), 386쪽.
12. *Life of John Taylor*, 137~140쪽.
13. *Life of John Taylor*, 137~140쪽.
14.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203쪽.
15. *Life of John Taylor*, 199쪽.
16. *Gospel Kingdom*, 332~333쪽.
17. Conference Report, 1906년 4월, 7쪽.
18. “Songs of the Heart,” *Improvement Era*, 1940년 9월호, 522쪽.
19.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96쪽.
20. “Stories and Counsel of President Taylor,” *Young Woman’s Journal*, 1905년 5월호, 218~219쪽.
21. *Gospel Kingdom*, 242쪽.
22.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53쪽.
23. *Life of John Taylor*, 410~411, 415~416쪽.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여러 번 나를 구해 주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높은 표준을 유지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네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생활하라.”

“그분께서는 자녀들을 가족의 영향력 아래 두기를 강하게 소망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놀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다. 심지어는 일흔 살이 넘으셨을 때도 우리와 함께 놀이를 즐기시곤 했다 ...

“... 그분은 자녀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셨는데, 그분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sup>20</sup>

###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갈 때, 그들이 전파하는 진리를 뒤집어 엮을 수 있는 권세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sup>21</sup>

브리감 영 대관장이 1877년에 서거하자, 1880년 존 테일러 회장이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될 때까지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인도했다. 이 해에 값진 진주가 표준 경전으로 편입되었으며, 27편의 새 편들을 포함시켜 교리와 성약 신판이 출간되었다.

테일러 대관장은 글 쓰는 재능을 계속 활용하였으며 1882년에는 *The Mediation and Atonement*를 저술했다. 그 주제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놓여 있는 위대한 축복과, 특권과, 권세와 승영을 알고 난 후에, 그것들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일은 우리의 의무가 된다.”<sup>22</sup>

1885년에 테일러 대관장은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를 했다. 복수 결혼을 반대하는 법인 에드먼즈 법령의 영향으로 인해 테일러 대관장은 은둔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는 1887년 7월 25일 유타 케이스빌에서 서거했다.

## 참된 보화

소피아 코리나 리몬디 데 아그레다

**19** 83년 10월에 나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한 파티에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한 젊은 숙녀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보통의 책이 아니었으며 마치 내가 전부터 찾고 있었던 책같이 보였다. 실제로 어떤 광선이 그 책에서 나오고 있는 것같이 보였는데, 마치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젊은 숙녀와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나는 수줍음을 참아가며 그녀에게로 갔다. 펼쳐진 책을 훑어 보았으나 맨 위에 있는 **앨마**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내 가슴은 설레임으로 쿵쿵거렸다. 그 책이 내가 찾던 책임에 틀림없었다.

내가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그 책 좀 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내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 책이요?”

“네, 그 책이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알아보고 싶은 책인 것 같아서요.”

“왜죠?”

“그 책에 대해 관심이 있거든요.”

“보여 드리겠지만, 이유가?”

“글쎄요, 제게 굉장히 중요한 책 같아서요.”

“하지만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 줄 수는 없나요?”

나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 책을

보여 주기 싫다면 적어도 제목만이라도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말해 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나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약 2년 전에 이 나라로 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교회가 옳은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찾아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주님은 제게 요셉이라는 이름의 예언자를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가 옳은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교회의 교리는 성경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책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찾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찾는 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책에 관해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길 표지판이고 책 안에서 본 단어는 **앨마**라는 단어였습니다. 맥에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젊은 숙녀는 적지 않게 놀라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 책이 **몰몬경**이라고 말했으며, 내 의도가 훌륭하다는 것을 이해하고는 드디어 그

책을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제목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내가 질문을 할 차례였다.

“몰몬들은 이 책을 가지고 있나요?”

“네.”

“누가 이 책을 썼습니까?”

“이 대륙에 살았던 여러 예언자들이 썼지요.”

**그** 녀는 내게 자신이 읽고 있던 그 책이 **몰몬경**이라고 말했다. 나는 제목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책을 쓰지는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는 신성한 명령에 의해 금판에 적힌 기록들을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참된 보화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몰몬경을 읽기도 전에 나는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했다.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도 확실했다.

책을 가지고 있던 젊은 숙녀는 나를 선교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들은 곧 몰몬경 한 권을 내게 주었다.

몰몬경을 찾은 후로 그 책은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가 되어 왔다. 그

책을 읽을 때 나는 고통

속에서 위안을 느낀다. 낙담할 때 희망을 발견하며 모든 것이 공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

소피아 코리나 리몬디 데 아그레다는 페루 모렌도 지방부 모렌도 지부의 회원이다.



## 조카딸의 간증

이르마 데 맥케나

**내** 조카딸 마리엘라는 겨우 여덟 살 때 엄마가 죽었다.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아버지, 곧 내 동생이 그 아이와 아이의 오빠, 그리고 아이들의 외할머니를 데리고 그 나라의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

거의 동시에 나는 내 조카딸의 엄마에

관한 꿈을 꾸었다. 꿈 때문에 나는 마리엘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멀리 살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우리는 대체로 방학 때에만 서로 만날 수 있었으나 그 때마다 나는 교회에 관해, 복음 표준에 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갖고 계시는 사랑에 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마리엘라가 젊은 여성이 되자, 나는 마치 그 애의 엄마라도 된 것처럼

그에 대한 사랑이 커졌다. 그러다가 마리엘라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그 아이를 여러 번 방문했으며, 나는 그 애가 침례 받기를 열렬히 소망했다. 그러다가 그

**다** 음 번에 마리엘라가 나를 보러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애에게 가족 기록서를 보여 주었다. 그 애에게 우리가 그 가족을 위해 어떤 성전 의식을 행했는지를 말해 주었다.





애는 직장 일로 전근을 가서 더 멀어지게 되었다. 나는 그 애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그 이후로 오래지 않아 마리엘라는 무척이나 사랑하던 세 사람의 죽음을 겪었다. 자신을 키워 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후에 남자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사건들은 내 조카딸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애는 인생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어버렸다. 나는 계속해서 그 애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위로하고, 또 이러한 슬픈 경험들을 견디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 애썼다.

그 애 아버지가 죽은 지 일 년 후에 나는 그의 성전 의식을 집행할 준비를 했다. 그의 아내, 그리고 어려서 죽은 한 딸을 그에게 인봉하고 그와 그 아내도 그들의 부모에게 인봉했다.

다음 번에 마리엘라가 나를 보러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애에게 가족 기록서를 보여 주었다. 그 애에게 우리가 그 애의 가족을 위해 어떤 성전 의식을 행했는지를 말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복음과 그들을 위해 집행된 이러한 의식들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가족들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조카딸에게 확신시켰다. 그 애는 깊은 감명을 받고 리아호나(스페인어) 과일호 몇 권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후로 그 애는 보다 더 자주 나를 방문했으며 우리는 종종 복음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마리엘라는 선교사들이 자기에게 토론을 가르쳤으며 또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내게 말했다. 그 애는 복음이 가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됨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이 일이 그분이 항상 바라시던 것, 곧 복음을 장막 양편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져다주는 일임을 믿는다. ■

이르마 데 맥케나는 칠레 쿨푸에 마르가 마르가 스테이크 쿨푸에 센터로 와드의 회원이다.

## 나는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넬 타마잔

나는 1996년 11월 17일에 러시아 사마라에서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은 즉시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고 싶다는 소망으로 가득 찼다. 1년이 빨리 지나가 선교 사업에 관해 지부장님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몹시 기다렸다.

그 때가 되었을 때, 나는 필요한 접견을 가졌으며 선교사 추천서 양식을 다 기재했다. 그런 후에 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러시아에서 2년 동안 살았지만, 나는 아르메니아 국민이었다. 나는 아르메니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군복무를 그 때까지 마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금식하며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1998년 3월에 입대 영장을 받고 나는 아르메니아로 돌아가야 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 의지했다.

아르메니아 군대에 있는 동안 나는 자신이 맺은 성약들을 지켰으며 또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했다. 나는 종종 다른 병사들에게 간증을 하기도 했으며 하루

내내 기도도 했다. 나는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하면 빨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간구했다.

군대에서 두 달 반이 지난 후에, 나는 몸이 아파 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다. 의사들이 검진을 했을 때, 나는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의사들은 그 심장병이 내가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믿었다. 그 병이 이제는 폐와 간 그리고 비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몸이 부어서 마치 몸무게가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

진단 결과 제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나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다는 현실이 두려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나를 도와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었다.

병원에서 한 달쯤 보낸 후에, 아르메니아 인으로서 교회 회원인 아라랏 형제가 예기치 않게 나를 찾아왔다. 그와 두 명의 선교사가 내게 신권 축복을 주었다.

3주 후에 제대를 했다. 오래지 않아 나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진 것을 느꼈다.

내게는 제대 증명서가 필요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 기도를 끝냈을 때

나는 응답을 받았다.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싶었다.

여러 날이 지났다. 제대 증명서에 관해 문의할 때마다, 공무원들은 “올해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고 기다렸다. 그러다가 12월 15일에 “와서 서류를 가져가십시오. 다 준비되었습니다.”라는 전갈을 받았다.

다음 문제는 여권을 발급 받는 것이었다. 그 해 말은 여권을 발급받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으며 나는 6월까지의 여권을 받을 기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놀라워하며 말했다.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기도를 드렸다. 다시 인내심을 갖고 주님께 의지하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기다렸고,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1999년 1월 5일에 여권을 받았으며 1월 7일에는 입국 사증을 받았다. 선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내가 해야 했던 일은 접견과 서류 작성을 끝내고 필요한 의료 검진을 받는 것이었다. 비록 회복되긴 했지만 내 심장병으로 인해 봉사를 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나를 검진한 의사는 내 병력을 알고는 내 심장을 검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의사가 결과를 보며 놀라워하며 말을 했다.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심장병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없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신권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축복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곧 러시아 모스크바 남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다. 그분이 고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다. ■

*그벨 타마잔은 러시아 모스크바 남지방부, 타그안스키 지부의 회원이다.*



# 알고 계십니까?



## 1월에 일어난 일

다음은 교회사에서  
1월에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다.



1827년 1월 18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뉴욕  
주에서 엠마 헤일과  
결혼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요셉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일하면서 엠마의 집에서 하숙할 때였다.

1841년 1월 19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주어진 계시에 성도들이 나부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교리와 성약 124편 참조)

1900년 1월 21, 28일: 55개의  
와드가 있었던 솔트레이크 스테이크가  
나뉘어져서 조던 스테이크와 그레나이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개척자들이 1847년에 도착한 이후에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있었던 최초의  
스테이크 분리였다.



##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주님의 성역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도록 부름받는 자는 두목이나  
독재자로 부름 받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설명했다. “선한 목자가  
되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자기 자리를  
이어 받고, 그들이 교사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크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자기가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교리와 성약 121편  
41~43절을 읽고 그 곳에 담겨 있는  
“지도력의 만능 열쇠”를 찾아볼 것을  
제언했다.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성도의 벗, 1981년 4월호,  
57쪽 참조)



## 사은회의 밤

독일의 카이저스라우테른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시험 성적을  
매기며, 소란스러운 학생들에게 인내를  
보이는 것이 과연 가치있는 일인지를  
의아해 할 때, 독일 카이저스라우테른  
밀리타리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에게 그들이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일을 좋아한다.  
지난 6년 동안 청소년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사은의 밤 행사를 가져 선생님들의  
봉사와 보살핌에 감사를 표해 왔다.

청소년들은 올해의 주제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선택했다. 그들은  
선생님들의 지도, 지식 및 봉사에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을 위해 추억과 어록이  
담긴 책을 만들었다. 청소년들은 또한 이  
행사를 위해 교회 활동실을 장식해 놓고  
선생님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으며, 여흥을 위해 쇼를 공연했다.  
그들은 선생님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각 식탁에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여러 부 놓아 두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 분명 감사하고 있었다.

위쪽부터: 그림: 네이딘 바튼, 상호부조회의 조적; 사진 촬영: 윌슨 시 앤더슨, 일리노이 나부 성전; 그림: 데이비드 린슬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독일 카이저스라우테른 밀리타리 스테이크 사진 제공; 배경: 사진 촬영: 엘튼 시 앤더슨, 일리노이 나부 성전의 일부

# 리아호나

## 2003년 1월호

### 활용하기

#### 토론 제언

■ “주님의 길”, 2쪽: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사용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후에 여러분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보여 준 사람에 관해 이야기한다. 반원이나 식구에게 그들의 사랑과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웃에 관해 생각하도록 부탁한다.

■ “가르침, 설교, 병 고침”, 12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생”이라는 점과 그분은 교사들의 학생, 그분의 학생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그분의 영을 기꺼이 부어 주실 것이라는 점을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반원이나 식구들에게 만일 주님이 그들의 교사라면 어떻게 귀기울여 들을 것인지를 묻는다. 이처럼 그들이 귀기울여 듣는다면, 주님은 성신을 통해서 그들의 교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영에 귀기울인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최선을 다하라”, 친7쪽: 벤자민 프렛이 그의 친구에게 인용한 시의 메시지, 곧 인생에서 유일한 시험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토론한다.

반원이나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다.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시는 주님, 제임즈 제이 티솅

#### 이번 호의 주제들

- 친=친구들
- 가르침.....12, 48
- 가정 복음 교육.....7
- 가정의 밤.....48
- 가족 관계.....26, 32
- 가족 역사.....42
- 간증.....26, 42
- 개종.....42
- 개척자.....34, 친7
- 인내.....친7
- 고결성.....34
- 교회 회원이 됨.....친4
- 교회사.....34, 47, 친7
- 물문경.....42
- 방문 교육.....25
- 병 고침.....12, 42
- 봉사.....2, 24, 32, 친2
- 사랑.....2
- 선교 사업.....32, 34, 42
- 성신.....12
- 성약.....친2, 친16
- 성전 및 성전 사업.....42, 친6
- 성찬.....친2, 친16
- 속죄.....12
- 신앙.....42, 친7
- 신앙전서.....8, 친4, 친10, 친13
- 역경.....42, 친7
- 예수 그리스도.....2, 8, 12, 친4, 친10, 친13
- 예언자.....34
- 우정.....2
- 재능.....친13
- 재림.....25, 친10
- 준비.....25, 친10
- 지도력.....24, 47, 48
- 진리.....34
- 초등학교.....친4
- 침례.....친16

#### 배부 센터에서 알립니다.

회원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해 복음 그림 팩킷(물품 번호 34730 32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팩킷에 있는 각 그림에는 그림과 관련된 성구, 교리, 또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관련된 설명은 가정의 밤과 주일학교 공과, 초등학교 말씀 또는 세미나리 모임에 맞게 쉽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는 지역의 배부 센터에 연락 바랍니다.

# 친구들

2003년 1월호



# 성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성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말씀 이상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성약들을 지킨다면, 그 성약들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언** 제나 우리는 주님과 맺는 구원의 성약을 존중하고 성스럽게 지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아 기쁨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가져다 주는 비밀로 평화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42:61)

많은 성약은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맺어지고 또 지켜져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약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는 결혼 성약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이 성약에서 나옵니다.

침례 성약은 확인 의식과 함께 영생의 문을 열어 줍니다.

성전 성약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가장 큰 축복들을 얻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취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취함으로써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구세주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떡과 물을 합당하게 취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분을 생각하여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언제나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우리가 성찬을 정규적으로 취하고 이러한 성약에 충실하다면, 율법이 우리 내면의 일부가 되며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처치 뉴스*에 실린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룹의 신학 교사들이 비유에 초점을 맞춰 구세주의 생애를 조명하는 여름 강좌를 듣고 있었습니다.

“기말 고사를 볼 시간이 임박하여 ...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보니 시험이 교정 건너편에 있는 다른 건물에서 치러질 것이라는 공고가 나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공고에는 시험이 두 시간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둘러 교정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한 어린 소녀가 바람 빠진 새 자전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 한 손으로 지팡이에 의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 책들을 여기저기 흘리면서 도서관으로 비틀대며 가고 있었습니다. 유니온 건물의 벤치 위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덩수룩한 수염을 기른 사람이 [번민에 싸인 듯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시험장에 허겁지겁 들어서자, 교수님이 학생들을 맞으시면서, 모두 낙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구세주의 삶과 가르침을 진실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유일한 참된 시험은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유능한 교수 아래에서 수주간 배워 온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아주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글로는 배웠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린 소녀와 두 남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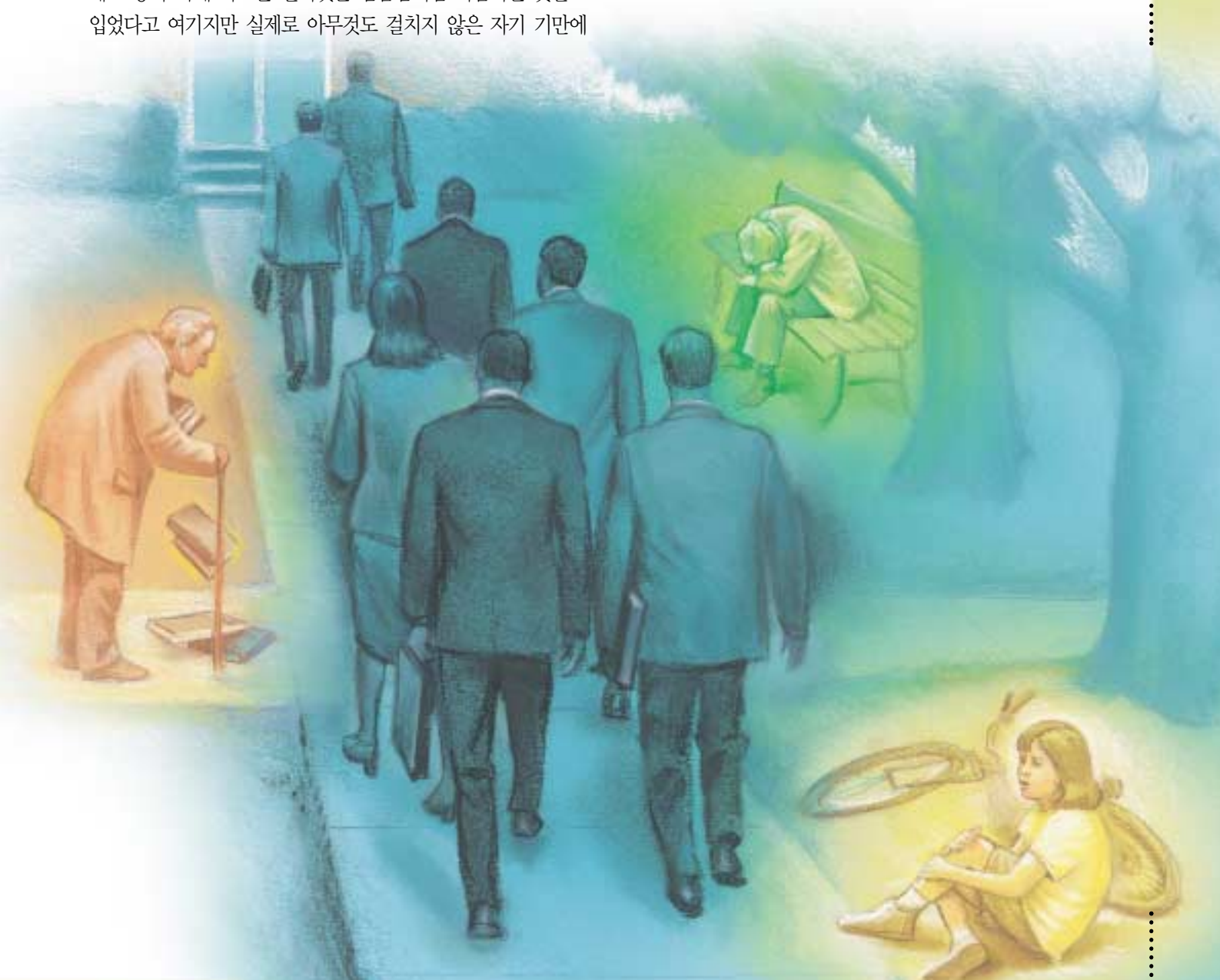
간과하고 지나친 것을 볼 때 그들은 그 수업의 심오한 메시지를 그들의 폐부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살피며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성품의 진정한 면모를 원한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품성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납니다. 타인을 기만하려는 태도는 오직 자기 기만의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동화 속에 나오는 별거벗은 임금님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자기 기만에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복음 의식에서 약속된 주님의 성신에 의해 인도될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인도로부터 오는 [거룩하게 되는 상태 꾀 성결하게 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축복을 상실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

199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구세주이신



나는 신앙으로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존중할 것입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빛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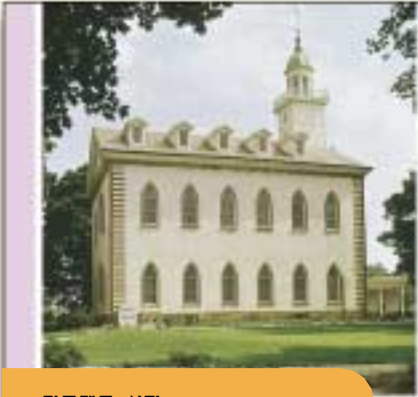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 성전 카드

2003년의 친구들 각 호에는 성전 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다. 잡지에서 성전 카드를 떼어내어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이고 오려낸다. 성전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는 카드를 수집한다.



**커틀랜드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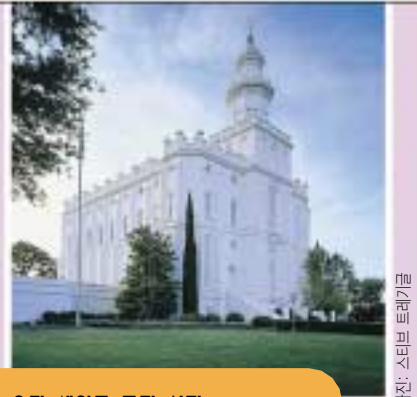
(현재 교회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1836년 3월 27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헌납함



**나부 성전**

(원래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846년 4월 30일과 5월 1일에 헌납함. 2002년에 재건축

그림: 스티븐 티 베어드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

1877년 4월 6일에 다니엘 에이치 웰즈 부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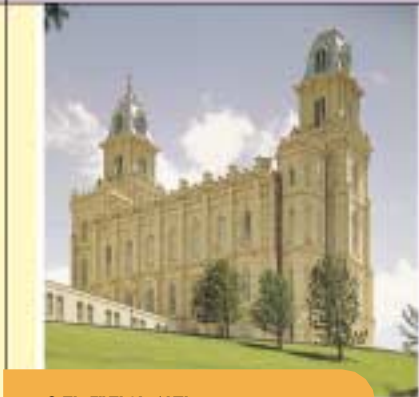
사진: 스티븐 트레기트



**유타 로간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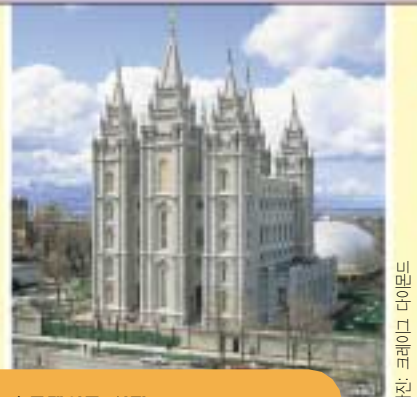
1884년 5월 17일에 존 테일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브랜트 래스미슨



**유타 맨타이 성전**

1888년 5월 17일, 21일에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과 로렌조 스노우 장로가 헌납함



**솔트레이크 성전**

1893년 4월 6일에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크레이그 다이먼드



**하와이 라이에 성전**

1919년 11월 27일에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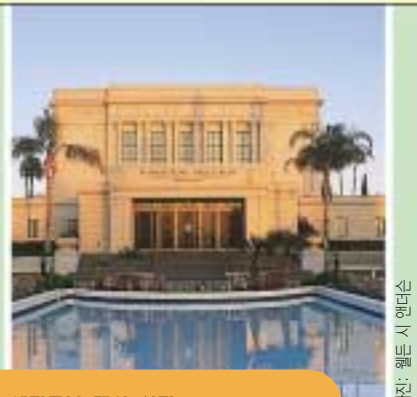
사진: 크레이그 다이먼드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

1923년 8월 26일에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멜 에텔사우서



**아리조나 메사 성전**

1927년 10월 23일에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윌트 시 앤더슨



# 최선을 다하라

비앤 프레스트위치

“어서 와”, 벤자민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멈춰서는 안 돼.” 벤자민 프랫은 목구멍이 아픈 것을 느꼈다. 삼키기가 힘들었다. 목구멍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물고서 말을 했다. 그가 만일 영국에서 이렇게 아팠다면, 자리에 누웠을 것이다. 하지만 마틴 손수레 부대의 일원으로서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흘날리는 눈이 두 사람의 시야를 가렸다. 얼어붙은 대지는 울퉁불퉁했고 그들은 종종 발이 걸려서 비틀거렸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해.” 벤자민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말했다. “진영의 다른 쪽도 점검해야 해.”

“왜?” 그의 친구가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보초를 서고 있는데?”

“진영의 식량이야.”

같이 있던 동료가 빙긋이 웃었다. “우리엔겐 식량이 전혀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벤자민은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영에는 식량이 거의 없었다. 먹지를 못해서 그의 위장은 쓰라렸다. 숨쉬는 것도 어려웠고 너무도 피곤했다. 그가 그토록 하고 싶은 일은 언 땅에 그대로 쓰러져 자고 싶은 것이었으나 그렇게 하면 죽음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있는 동료를 다그쳐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차가운 밤이 지나 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무거운 발을 이끌고 진영의 주위를 돌았다.

어제는 손수레 부대가 플랫 강에서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 낮에 많은 눈이 녹아서 가는 길이 진흙탕이 되어 있었다. 진흙이 사람들의 옷에 덕지덕지 붙었다. 태양이 어두운 구름 뒤로 숨자, 많은 진흙이

얼어붙었다.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벤자민은 대부분의 손수레 부대 사람들을 얼굴을 보지 않고 그들의 눈과 목소리만으로도 분간할 수 있었다. 천으로 덮어 놓지 않은 것은 모두 진흙과 먼지로 덮여 있었다.

“난 더 이상 갈 수 없어.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안되겠어.” 하고 그의 동료가 말했다.

벤자민은 피로에 지친 동료들 바라보았다. 얼굴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머리는 먼지와 함께 얼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형질 조각이 감겨 있었다. 바지는 곳곳에 구멍이 나서 추위로 인해 자주빛으로 변한 피부가 보였다. 곳곳하게 이겨 내지 못한 것이 못내 슬퍼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벤자민은 손을 동료의 어깨 위에 얹고 그가 진영을 순찰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 “괜찮아, 친구야. 우리 아버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던 시를 한 번 들어 볼래.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  
단 하나의 시험이 있네  
그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야영지를 한 번 더 힘겹게 돌아본 후에 벤자민의 동료는 쉬러 천막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벤자민은 다시 보조를 돌기 시작했다. 그는 바람소리를 들었으며 여기저기 있는 백향목 가지들이 눈의 무게와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세차게 한 번 일자, 벤자민은 그 동료가 방금 들어간 커다란 천막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다.

벤자민은 앞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 메리와 적어도 20명이 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천막에서 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천막 기둥과 천막 천과 무거운 눈 아래 갇혔다. 마비된 손으로 벤자민은 얼어버린 천을 들어올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눈이 그 무게로 천막을 누르면서 그 아래 있던 모든 사람을 짓눌렀다. 천막 말뚝은 낮에는 진흙 속에 박혀 있었으나 지금은 땅이 얼어 있었다. 천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말뚝을 빼낼 수가 없었다.

모든 힘을 다해 벤자민은 더 열심히 말뚝을 뽑으려 했다. 한 어린 소녀가 천막 아래서 비명을 질렀다. 얼어붙은 천막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했던 한 여인이 빠져 나오려 하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천막을 위로

올려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완전히 갇힌 것이었다.

천막 밖에서 빙빙 돌며 허둥대던 벤자민은 구멍을 찾았다. 재빨리 눈을 굽어 내고는 그 구멍 속으로, 젖은 천막 천 아래로 몸을 들이밀었다. 천천히 한 번에 조금씩 그는 어깨로 천막을 받치고 일어섰다.

벤자민이 소리를 질렀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기어서 나와요” 사람들은 그의 잠긴 목구멍에서 나오는 조그만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벤자민이 더 크게 소리쳤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소리를 듣고는 목소리를 따라 기어 나왔다. 벤자민이 천막을 들어올리고 있는 곳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도 일어서서 그를 도와 젖은 천막을 들어 올렸다. 점차 천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눈이 내리는 밤에 밖으로 기어 나왔다.

잠이 깬 성도들은 프라이팬과 조리용 냄비를 가지고 무너진 천막 위의 눈을 퍼냈다. 새벽이 가는 빛줄기로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천막을 걷고 눈 속에서 가야 할 긴 하루의 행군을 준비했다.

7일 후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세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성도들은 환호했다. 벤자민은 그 환호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의 목은 회복되지 않아 아직도 아팠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가장 중요했던 시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른 사람이었다. ●

딸이 기록한 벤자민 플랫폼의 역사에 기초한 이야기



“여러분이 염려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감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한 발 한 발",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9쪽)



# 열 처녀



만  
민  
신  
화

예수님은 결혼식에 갔던 열 명의 처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신랑(인자)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도록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올 정확한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1, 13



열 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태우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녀들 가운데 다섯 명은 슬기로웠습니다. 등에 있는 기름 외에도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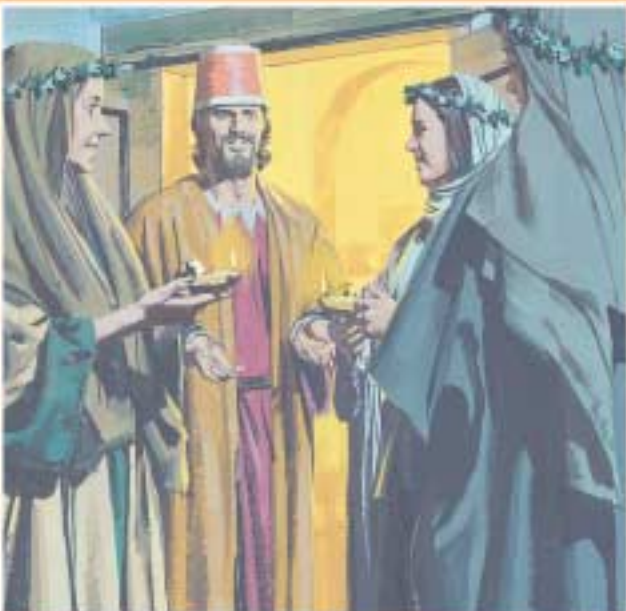
다른 다섯 명의 처녀들은 미련했습니다. 그들은 등에 들어 있는 기름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3



오랫동안 신랑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등에 있던 기름이 모두 탔을 때, 슬기로운 다섯 명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등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명의 처녀들은 가서 기름을 더 사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5:5~9



그들이 간 동안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는 슬기로운 다섯 명의 처녀들을 문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10



미련한 다섯 명의 처녀들이 돌아왔을 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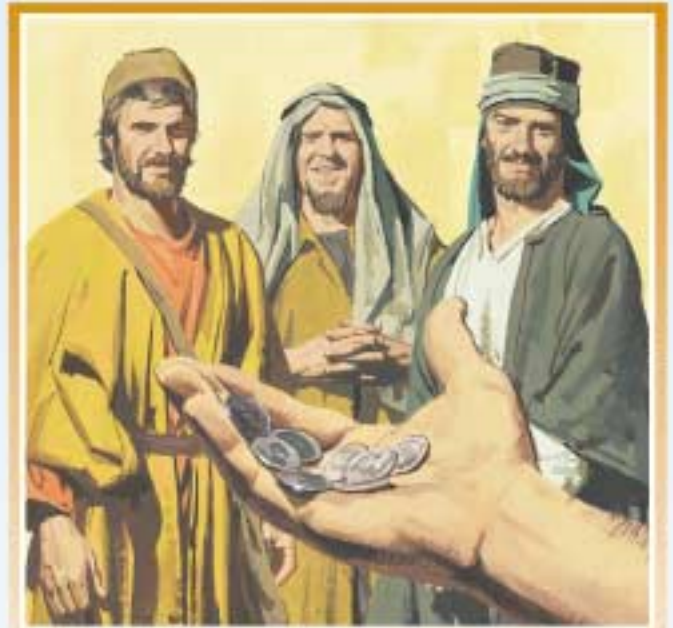


인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랑입니다. 교회 회원들은 열 명의 처녀들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떤 회원들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의 속삭임에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섯 명의 미련한 처녀들 같을 것이며 구세주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니파이삼서 25:1~2; 교리와 성약 45:56~57; 88:86, 92.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575~582쪽*



# 달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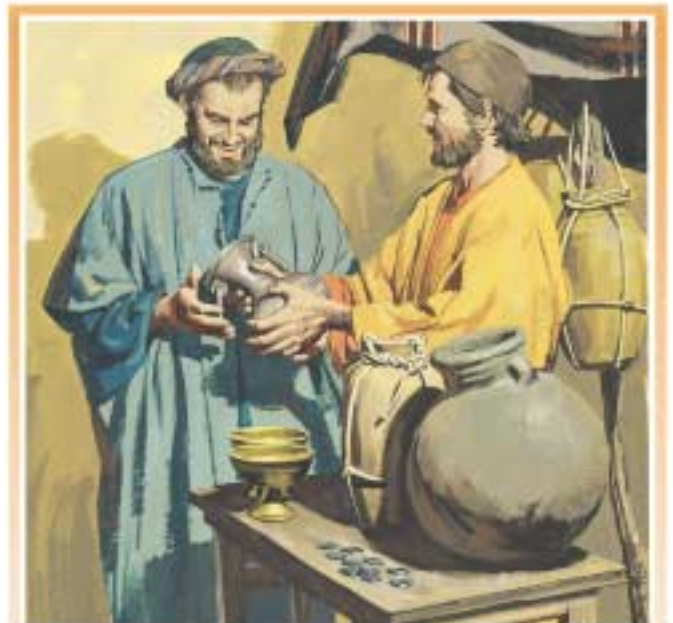
예수님이 돈의 일종인 달란트를 얼마씩 종들에게 주었던 한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14~15



그 사람은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었으며 또 다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5:15



다섯 달란트를 가진 종은 열심히 일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열 달란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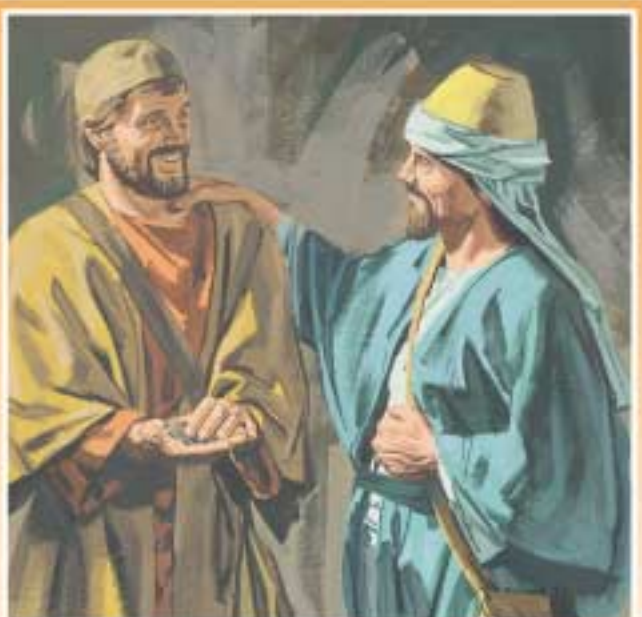
두 달란트를 가진 종도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네 달란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17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그것을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는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18, 25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종들에게 그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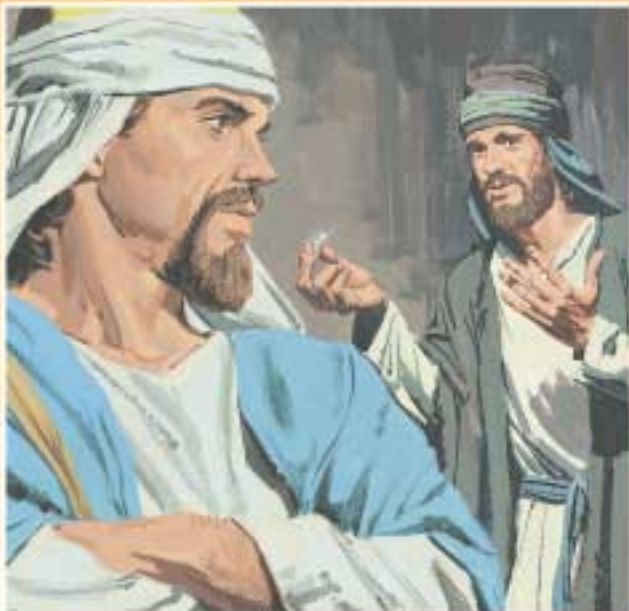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열 달란트를 가지고 오자, 주인은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 종이 많은 것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도록 했으며, 기쁨을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20~21



두 번째 종이 주인에게 네 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은 기뻐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종도 많은 것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도록 했으며, 기쁨을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22~23



세 번째 종은 땅에 묻어 두었던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종이 게으르며, 열심히 일하여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24~27



주인은 세 번째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첫 번째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게으른 종을 멀리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예수님이며, 또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이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28~30

# 침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가 소년이었을 때 뉴욕 주에 살았으나 여름을 유타에 있는 친척의 농장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건조 더미를 만들고, 말을 타고, 양과 소를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그는 침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살지만 침례 받은 순간부터 기꺼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아오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성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좁고 들어가야 할 문이 협착함일”(니파이이서 31:9) 보여 주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했으나 육체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에 있어 순종함을 아버지께 증거하여”(니파이이서 31:7) 보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겸손하도록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례의 물가로 나오도록 초대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지키겠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니파이이서 31:4~9 참조)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성한 이름을 짚어지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짚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지나는

가장 중요한 경험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매주 성찬식에서 우리는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면서 구세주의 속죄의 희생을 기억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 순종하고 항상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 보답으로 받는 축복은 그분의 영을 항상 지나는 것입니다.

저는 침례와 확인을 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 커다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생을 통해 성신의 은사가 제게 준 영적인 힘과 인도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2000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오른쪽: 사진 촬영: 웨스 테일러, 모델 촬영. 삽입 그림: 예수를 침례하는 침례 요한, © GREG OLSEN, FROM THE VISIONS OF FAITH COLLECTION BY MILL POND PRESS, INC., VENICE, FLORIDA: 배경: 사진 촬영: 로진 로치나